



# 승리의 7.27

7

주제 105 (2016)  
루체 제323호 월간

# 승리는 데를 이어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 $\text{♩}=130$ )

작사 차영도  
작곡 현경일

1. 우 리 는 이 날 까지 승 리의 한길 걸어 왔 다 -  
원 쭈와싸워 이긴 력 사 의 길 에 물 어 보 라 -  
미 제 의 성조기 를 통 했 히 짓밟 아버 리 며 —  
우 리 가 대 를 이 어 어 렇 게 싸웠 는가 를 - 자 랑 차  
다 승리 만 을 - 멀쳐 가 는 빛나 는 전 통 -  
백 — 승의 오 직 한 길 조선 의 길 이 여 라

2. 조국의 산파 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피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장한 아들딸들  
불멸의 그 위훈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멀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후렴)

3. 성스런 국기우엔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그 해빛 백승에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보검으로 미제의 멸망을 선언할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멀쳐나섰다  
(후렴)

## 차례

- 승리의 전통 -

7. 27, 승리의 전통은 데를 이어	3
일화	
말길마에 깃든 이야기	6
수기	
승리는 영원히 우리것이다	7
길이 빛날 전승업적	8
절대로 돌려보낼수 없다	11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여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카룬회의	14

친필비에 비낀 통일념원	16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건설장	17
믿을것은 모직 자기의 힘	18
아름다운 레일을 놓다	20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	
자력자강의 기치를 들고	24

사진

철령아래 사과꽃풍경	26
백도라지에 깃든 마음	26
통일을 그리는 마음	28
나여린 바둑명수	30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가는 여성들	30
높은 의술, 또거운 정성	32

조국의 품에 안겨

로학자의 추억	34
고향소식	
《평북녕변가》가 울리는 곳에서	36



보고싶은 언니에게 . . . . .	38
대외독자관계의 확대발전에 대하여 (1) . . . . .	39
『지팡이를 버리고 간다』 . . . . .	40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삽니다』 (2) . . . . .	41
민족의 냇을 암고 사는 작곡가 . . . . .	42
인상기	
태양이 그리워 찾고찾는다 . . . . .	43
력사인물	
민족적지조를 지킨 의병장 . . . . .	43
	
고국방문	
꽃피는 봄날에 . . . . .	44
평양의 혁사유적을 찾아서 (8) . . . . .	46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4) . . . . .	46
민족의 향기	
한여름철의 건강음료-식혜 . . . . .	48
사화	
한명의 관리로 . . . . .	48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 . . . .	50
승리의 전통과 패배의 역사 . . . . .	51
지을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4) . . . . .	54
야화	
풀산수의 계산법 . . . . .	55
죄와 벌 . . . . .	56
상식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와 넓이 . . . . .	29
대원군과 부원군 . . . . .	34
방만에 어떤 화분을 놓을것인가 . . . . .	38
유모아	
들어갈수 없는 제집 . . . . .	29
조선속담 (조소) . . . . .	56

## - 승리의 전통 -

## 7. 27, 승리의 전통을 래를 이어

지금으로부터 63년전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역사에서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는 기적을 창조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군대와 인민의 승리는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를 열어놓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종국적붕괴과정을 촉진시킨 역사적사변으로 되였다.

7. 27, 바로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그 모든 성과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승리의 7. 27을 맞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은 공화국에 있어서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준엄하고도 치렬한 싸움이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긁어모아 투입하고 인류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파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였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조선인민의 운명뿐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남조선파뢰도당이 전쟁을 도발한 바로 그날인 주체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송연설로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에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의 한 기자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미제의 무력침공을 타승할수 있는가고 묻는 그에게 우리 인민군대는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다고, 오래동안 식민지적압박을 받아본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될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조선인민군이 전체 조선인민의 끊임없는 원호와 지지를 받으며 또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싸우고있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군대와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에서 찾으시고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은 조국을 위하여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원쑤격멸의 성전에 파감히 뛸쳐나섰다. 조국해방전쟁은 전민전쟁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전기간 탁월한 군사지략과 전법, 령군술로 미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가하시였다.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도덕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는 전략을 확고히 견지하신 그이께서는 산악전, 야간전, 쟁도전과 비

## - 승리의 전통 -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신 기세로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열병대오  
주체42(1953)년

행기사냥군조운동 등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그이의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앞에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는 너무나도 무력하였다.

미제의 《상승사단》이나 《하늘의 요새》도, 《바다위에 떠다니는 섬》도 미국을 폐전의 운명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다.

전쟁전기간 미제는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하였다. 하여 침략전쟁역사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고 으시대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처음으로 참패의 기록을 남겼으며 《강대성》의 신화는 휴지통에 구겨박혔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하여 미제의 제3차 세계대전도발책동이 저지파탄되고 인류가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원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무장도발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던 지난 년대들에 무비의 담력과

지략으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 간첩비행기 《EC-121》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고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지난 1990년대에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평치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였으며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

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이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점과 까칠봉초소, 섬방어대들에도 서슴없이 나가시고 부대들의 전투훈련과 전략무기의 시험발사도 몸소 조직지도하시며 인민군대를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완성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의 령도아래 조국은 일심단결된 정치사상 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고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군사강국,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참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있다.

하기에 조국의 현실을 목격한 한 외국인사는 자기의 걱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오늘 세계는 조선전승의 계승을 현실로 보고 있다.

1950년대 총포성속의 전쟁에서 3대승리철학으로 대적과 싸워 이기신 김일성주석처럼, 근 60년간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선군정치로 대적을 무릎꿇게 하신 김정일령도자처럼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시작에도 탁월한 선군령도로 조선의 사회주의수호전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신다.

장기간의 조미대결사는 세계에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전 승 의  
광장에 올  
려 피 졌던  
만세의 환  
호 성 이  
김 일 성 광  
장에 빠  
리쳐간다.

히 수호하시고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시였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조국땅위에 군사강국, 핵보유국을 일떠세우시여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반미대결전에서의 련전련승업적을 굳건히 고수하시며 조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

된 타격을 받고 녹아난것이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이고 횡포한 미국의 도전을 짓부셔버리기만 한것이 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것을 응변으로 보여주었다. 이 두 전통은 결코 달리될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며 법칙이다. 이 전통들의 최후의 재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있다.

…』

이것은 결코 한 외국인사의 견해만이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심정인것이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첨단전쟁장비들을 계속 들이밀고 남조선피리들을 동족대결에 부추기고있으며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과 제도전복책동에 피눈에 되여 날뛰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하지만 제 2의 6. 25뒤에는 제 2의 7. 27이 있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제를 내리막길에 몰아넣었다면 제 2의 조선전쟁은 미제에게 종국적멸망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승리의 전통만을 아로새긴 조국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일화

## 말길마에 깃든 이야기

주체40(1951)년 7월 어느날 전선부대들을 찾아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높은 령을 넘어가는 한 박격포부대를 만나게 되시였다.

분해한 박격포들을 메고 영길을 오르는 포병들의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를 메고 행군하기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행군 도중에 뜻밖에 도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게 된 포병들은 끝없는 영광과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올라 한결같은 목소리로 힘들지 않다고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전사들의 어깨와 잔등을 아프게 짓누르는 포의 무게를 가늠해보시는 수령님의 안색은 뜹시 흐려지시였다.

최고사령부에 돌아오시여서도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생각하시였다.

얼마후 포병사령관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사들이 박격포와 포탄을

메고 산으로 다니자면 힘들어 할것이라고, 지휘관들은 전사들의 힘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무기와 탄약을 말에다 싣고다니면서 적파 싸웠는데 지금 전사들이 지고다니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박격포와 포탄을 말에 싣고다니게 할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산과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서 박격포와 포탄을 말길마(짐을 싣기 위하여 말의 등에 안장처럼 엮는 도구)에 싣고다니게 한다면 전사들의 짐도 덜어주고 산악을 극복하는데도 좋고 기동도 빠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포를 싣고다니는 길마와 포탄을 싣고다니는 길마 두가지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종이에 말길마의 형태를 손수 그려주시고 만드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시범적으로 만든 말길마를 보아주시며 사소한 부족점도 없도록 깊이 마음을 쓰시였다.

처음으로 말길마를 보아주시던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마꼭대기에 가로 실은 포신을 보시면서 포신을 말잔등과 일직선되게 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

었으며 길마에 실은 짐이 꽉 붙지 않는것을 보시고서는 짐을 길마에 바싹 붙여 힘을 고르롭게 받도록 실어야 산에서 행군할 때 나무에 걸리지도 않고 또 짐이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길마에 달린 고리를 보시고서는 끈을 조일 때 쇠고리가 벗겨져 빠지지 않도록 든든히 용접을 하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다시금 완성된 말길마를 보아주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포를 실은 말길마와 포탄을 실은 말길마를 기동시키도록 하시고 이만하면 강행군을 하여도 문제없겠다고, 우리가 이것을 좀더 일찌기 만들어 공급하였더라면 전사들의 무거운 짐을 벌써 덜어주었을것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 그후 인민군대의 박격포구분대들에는 말길마들이 공급되게 되였으며 인민군포병들은 험준한 산악들을 빠른 기동으로 극복하면서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포사격을 들씌울수 있었다.

\* \* \*

수기

##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전우들과 서로 열싸안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전승의 기쁨을 나누던 그때의 광경이 눈에 선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50년대에 벌어진 조국해방전쟁은 창건된지 얼마되지 않은 청소한 공화국과 110여 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는 《강대국》 미국과의 대결전이였다. 오만한 미제는 조국땅 우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면서 3일내에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빙어치우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조선인민의 승리, 미국의 패배로 끝났다.

온 나라가 전쟁의 불바다에 잠기었던 그때 미제를 때려부시는 세계사적기적을 이룩하신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군대와 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시였다.

전쟁시기 나는 최고사령부 타자수로 있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대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얼마나 뜨겁게 지니시였는가를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지금도 나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최고사령부의 한 군관이 들려준 감동깊은 이야기를 잊을수 없다.

주체41(1952)년 6월 어느날 최고사령부에서 주요지휘관회의를 지도하시던 수령님께서는 회의휴식시간에 밖으로 나오시였다. 회의장밖에서 보초근무를 서고있던 나어린 전사에게로 다가가신 그이께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가고 조용히 물으시였다.

이길수 있다고 힘차게 보고올리는 전사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어떻게 이길수 있느냐고 또 다시 물으시였다. 이번에도 보초병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있고 세계 혁명적인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기때문에 꼭 이긴다고 말씀을 하였다.

보초병은 계속하여 인민군대에 함께 입대한 고향친구가 전선에서 소식을 보내왔는데 수류탄만 많이 있으면 미국놈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리는 꼭 이긴다고 신심에 넘쳐 편지에 썼다고 말씀드렸다.

나어린 보초병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빙 둘러선 지휘관들앞에 그를 내세우시며 자, 보시오. 전사는 이긴다는게 자신께서는 전사의 대답을 믿는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그때 나는 그 군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렬처절했던 조국해

방전쟁시기 우리 수령님께서 불비쏟아지는 수천리 먼길도 마다 하지 않으시고 전선과 후방을 찾으시여 만나주신 수많은 사람들 을 어찌 다 셀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미쳐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바로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쟁의 포성이 몇은 때로부터 어언 6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이룩된 승리의 전통은 오늘에로 계속 이어지고있다.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을 잘 못 보고 덤벼들었다고 후회와 변민으로 모대기던 미제는 그 교훈을 잊고 어떻게 해서나 우리를 어째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저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책동을 천재적인 군사지략으로 짓뭉개버리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앞에 무릎을 뚫고말았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빛나는 승리를, 미국에는 치욕스러운 패배만을 가져다준 조미대결전은 세계앞에 진짜 강자는 바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나는 이 모든것을 체험하면서 영원한 승리자로 떳떳이 자부하는 군대와 인민은 오직 우리 조국땅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주의수호전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는 조미대결전에서 영원히 승리만을 거두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 75인민반 전쟁로병 송영실



- 승리의 전통 -

## 길이 빛날 전승업적

- 전승혁명사적지를 찾아서 -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세계 전쟁력 사상 처음으로 침략자 미제를 무릎꿇게 한 승리의 7. 27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있는 전승혁명사적지를 찾았다. 전승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주체40(1951)년 1월부터 주체 42(1953)년 12월까지 계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와 내각사업을 지도하신 곳이다.

우리는 먼저 참관자들과 함께 전승혁명사적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사적관의 1호실에는 미제와

의 3년간의 전쟁을 승리으로 이끄신 후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시고 비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현이 모셔져있었다. 우리를 수록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합세력을 때려부시고 영웅조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철장



전승혁명사적관의 일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심과 감사의 정이 흘러넘치였다.

다음 참관자들과 함께 2호실에 들어선 우리는 전시된 박격포와 기관단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불비쏟아지던 전화의 날 군수로 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것이여서 더욱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검덕의 광부들이며 군복생산에 열중하고 있는 폐복공장로동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들과 군수생산과 관련한 여러 명령, 결정서들을 보면서 전시생산보장을 위해 수령님께서 취하신 조치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정당한 것이였는가를 절감하며 우리는 3호실에 이어 4호실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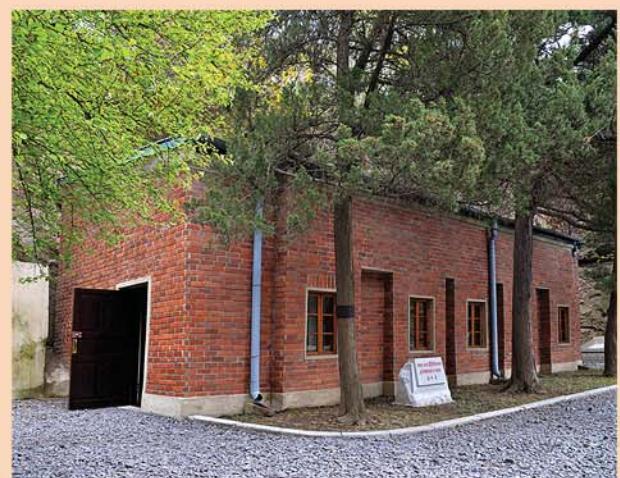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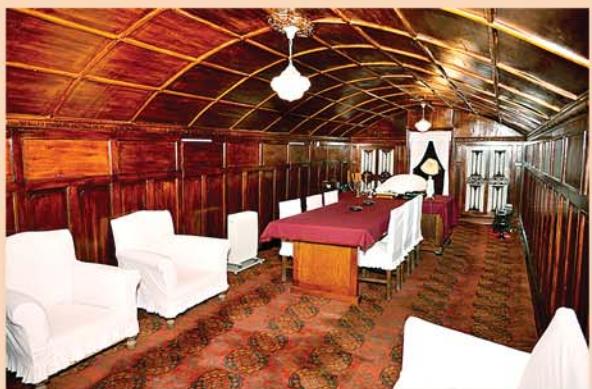
4호실에 전시된 전재민들의 생활을 잘 둘봐줄 데 대한 시책들,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할 데 대한 지시,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높은 값의 보충미공급제 실시 등



전시 교육, 과학, 보건을 비롯한 문화건설사업과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현들과 사적자료들, 사진자료들을 보는 참관자들의 가슴은 그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뜨겁게 젖어들었다.

참관자들과 함께 5호실과 6호실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예전 성 있게 진행하시였으며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그이의 철의 의지와 담대한 배짱에 대하여 다시금 느끼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계시던 집무실 (왼쪽-강도, 오른쪽-야외)



사적관을 나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시고 비준하실 때 리옹하시었던 건물로 향하였다. 지금도 잊지 못할 그날의 사연을 전하는 방안의 여러 사적물과 그이께서 사용하시던 만년필을 보니 정전협정문건을 높이 드시고 우리가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단매에 꺾어놓았다고 교시하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 듯싶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강철의 철장을 모심으로써 청소한 공화국이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고 세계전쟁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지게 하였다는 것을 우

## - 승리의 전통 -

리는 그이께서 사업하시였던 집무실을 비롯한 여러 사적 전물을 돌아보며 뜨겁게 절 감하였다.

수령님께서 군사위원회 사업을 지도하시던 집앞에서 강사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41(1952)년 4월 어느날 군사기획관들과 일군들을 부르신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온 아들의 편지를 받아안고 기뻐하던 한 어머니를 만나신데 대하여 이야기 하시였습니다. 그 아들이 종이가 없어 전투의 여가시간에 수첩장을 뜯어 밥풀로 불여서 만들어보내온 편지봉투를 보신 그이께서는 우리가 야전용군사 우편엽서를 만들어보내주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면서 군사우편엽서를 꼭 인쇄하여 전 전선의 인민군전투원들에게 보내주는 사업을 조직해야겠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

준엄했던 전화의 나날에 수놓아진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참관자들은 수령님께서 적들의 폭격이 심할 때마다 리용하시였던 간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잊을수 없는 사연을 전하며 지금도 원상대로 보존되어있는 간도입구에 서니 적



사적관의 내부를 돌아보는 참관자들

비행기의 맹폭격속에서도 초불로 밤을 밝히시며 전쟁승리를 위한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히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와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군인들을 소환하여 대학에 보내신 사실이며 인민들의 겨울나이준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신 이야기,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시고 지도해주신 사연이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수령님의 집무실, 회의실을 비롯한 간도의 여려곳을 돌아본 우리는 반지하식당, 외부식당, 담화터 등에도 가보았다.

진정 사적지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타월한 령군술, 군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전승혁명사적지를 나서는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 신념의 맹세가 비껴 있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 절대로 돌려보낼수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탐행위를 하다가 공화국에 나포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찾아와야 한다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지금으로부터 48년전인 주체57(1968)년 1월에 공화국의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 해병들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당시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미국을 경악케 하였으며 그때 미국은 어떻게 하나 간첩선을 찾으려고 온갖 군사적책동을 다하였다. 미국은 간첩선의 나포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이른바 군사적보복을 선택하고 핵추진항공모함을 위수로 하는 대기동함대와 수백대의 전투기들을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한편 저들의 《강대성》을 믿고 간첩들과 배를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것, 우리 인민과 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였다. 그이의 이 폭탄선언은 분별없이 날뛰는 호전광들의 등줄기를 후려갈기며 멸적의 선언으로 퇴성쳤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모두가 반미 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만약 침략자들이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한몸이 그대로 어뢰가 되고 폭탄이 되여 원쑤들을 모조리 재가루로 날려버릴 투지를 안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 장군님께 최고사령관이라는 립장에서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적들이 항복서를 낸다고 해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포한 미제무장간

첩선을 먼 후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고 힘주어 대답하시였다.

참으로 공화국의 삶과 존엄을 건드리는자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는 두분의 이런 철석같은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한마음한뜻으로 밟들어나가는 천만군민의 불패의 힘이 있어 미제는 드디어 굴복하고 저들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정부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감행한 정탐행위와 적대행위를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고 서명한 사죄문을 공화국에 바치였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은 쓰디쓴 참패의 고배를 맛보지 않을수 없었다.

오늘도 평양의 보통강반에 묶여있는 《푸에블로》호가 세상사람들에게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 조미대결에서는 언제나 조선은 승리, 미국은 패배라는것을 산 증거물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그러한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동을 피워서 얻을것은 하나도 없다. 《푸에블로》호를 미국에 되돌려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

본사기자 강경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어느덧 4년세월이 흘러갔다.

주체101(2012)년 7월 17일, 그날로부터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그이를 《우리 원수님》이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따르고 있다.

우리 원수님!

우러러 부를수록 우리 민족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대한 민족으로 자기의 존엄을 멀치게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넘쳐난다.

그러느라면 슬픔의 바다에 잠겨있던 조선이 어느 길로 갈것인가를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던 그때가 되새겨진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으신 곳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었다. 틀어쥔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결연히 일떠선 인민군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겪고 사신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세계는 강력한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조를 다시 한번 읽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총대중시, 군사중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추호도 드릴수 없는 혁명의 근본원칙이며 전략적로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코앞에 적들이 우글거

리는 최전연에까지 몸소 나가시여 군인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해주시면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것은 인민군장병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의 초소들을 철벽으로 지키고있기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린 조국의 최전방 판문점을 찾으시여서는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이 무릎을 끓고 정전협정에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적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보이는 까칠봉초소를 찾으시여서는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곳은 결코 외진 초소가 아니며 최고사령관이 동무



들과 늘 함께 있다고 하시며 군인들에게 조국수호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언론들은 오성산의 까칠봉초소를 찾으신 원수님의 시찰소식을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이 방문한 최전방초소는 남측초소에서 불과 350m 떨어져 있다. <K-2> 소총의 유효사거리가 600m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김정은제1위원장의 최전방초소시찰은 대담무쌍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찾으시는 인민군부대들마다에서 군인들에게 멸적의 선군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였고 백두의 훈련열풍이 나래치는 훈련장들에서 군인들의 종합전술훈련과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해주신 그이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인민군대는 만능의 주체전법과 필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멀치게 되였다.

신형대구경방사포, 정밀화, 소형화된 핵탄두 등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비롯한 우리식의 새로운 무기들을 연구개발하여 불패의 군력을 비상히 강화하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군사적조치들을 대담무쌍하게, 용의주도하게 취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



력과 배짱, 비범한 령군술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을 제압분쇄하는 무서운 철추로, 조국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나날이 억세여지는 무적의 혁명강군이 있어 오늘 조국인민은 마음놓고 아름다운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고 꽂피워나가고있다.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종국적승리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끈바로 나아가는데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시고 그 길을 따라 끈바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조국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한신애





## 카륜 회의

6월 하순이 되자 동무들은 약속한대로 카륜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카륜에는 이미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들어가있었다. 우리는 1927년경부터 만주각지로 쉽게 래왕할수 있는 교통의 분기점에 활동기지를 하나 만들어둘 필요를 느끼고 공정핵심들을 파견하여 이 일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카륜에서 회의를 하려고 결심하게 된것은 이곳이 교통상 편리한 지점에 자리잡고있다는 점과 회의참가자들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을 전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은폐된 활동기지라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카륜은 반일운동자들의 래왕이 찾은 고장이었지만 적들에게는 로출되지 않은 곳이였다. 이 고장 인민들이 또한 우리의 일이라면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때문에 회의장소로는 티상적인 곳이였다.

내가 카륜에 도착하니 소년탐험대 총대장인 정행정이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내가 카륜에 갈 때면 늘 그가 역에 마중을 나왔다가 나와 동행하곤 하였다.

카륜에 와보니 돈화나 길림보다는 분위기가 좀 평온하였다.

5. 30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여서 그 당시 간도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하였다. 그런데다가 일본군대의 동만출병이 박두한것과 관련하여 정세는 더 긴장해졌다. 일제가 간도에 군대를 들이밀려고 한것은 이 일대에서 급속히 확대되고있는 혁명운동을 진압하고 만동을 점령하며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데 있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라남에 주둔하고있는 일본군 제19사단 사단장 가와시마중장이 통정, 연길, 백초구, 두도구지방을 순시하고있었다. 국민당 길림군 참모장과 민정청 청장도 때를 같이하여 동만을 시찰하였다.

간도지방의 혁명조직들이 동만으로부터 일본군 중장과 국민당 참모장, 민정청 청장을 내몰라고 호소한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나는 그때 카륜에 가서 진명학교 교원들인 류영선과 장소봉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장소봉은 진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동아일보》 지국장의 일도 겸하여보았다. 그는 차광수처럼 글도 잘 쓰고 식견도 높은데다가 일도 잘하여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것이 흠이였다.

동무들이 충고를 주면 자기 안해가 지나치게 봉건적인 녀자여서 도무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타발하였다. 장소봉이 가정생활에 취미를 불이게 하느라고 내가 여러번 설복도 하고 비판도 하였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장소봉은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장춘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전향하였다. 한때는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카륜을 혁명화하는데서 김혁과 장소봉은 특별히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들은 이 지방의 유지들과 힘을 합쳐 학교와 야학을 세우고 그것을 거점으로 교육운동을 벌리였으며 농민회, 청년회, 소년회, 부인회 등 종래의 계몽단체들을 농민동맹, 반제청년동맹, 소년탐험대, 부녀회 등의 혁명적인 조직들로 개편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항일혁명의 당당자로 훌륭히 교양육성하였다.

김혁의 주관하에 잡지 《볼쉐비크》가 창간된 곳도 바로 카륜이였다.

나는 카륜에 가서도 사도황구에서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두고 사색을 계속하였다. 한달가량 사색하고 정리한것을 종합해보니

페그나 부피가 큰 글이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것은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지도리론을 요구하고있는 현실적절박성을 빼어 사무치도록 통감하였기때문이다.

새로운 지도리론이 없이는 혁명을 한결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자주성을 요구하는 페압박인 민들의 혁명적진출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세계적규모에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페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가장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대륙은 아세아였다.

아세아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중심무대로 된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이무렵에 와서 아세아후진국들의 리권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을 더욱 로골화하였기때문이며 동방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파감히 떨쳐일어나 도처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하였기때문이였다.

외세를 구축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동방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멈춰세울수 없었다.

쏘련, 몽골혁명의 약진에 발을 맞추어 중국, 인도, 웨남, 베마, 인도네시아 등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억센 조류는 격랑처럼 끊어번지였다. 비폭력불복운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도의 거리에서 방직공들이 블은기를 들고 시위를 단행한 것도 이무렵이였다.

중국인민은 제2차 국내전쟁의 불길속에서 1930년대를 맞이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투쟁과 국내인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은 우리를 끌없이 흥분시키고 분

발시켰다.

당을 나오고 옳은 지도리론만 내놓는다면 인민을 퀄기시켜 얼마든지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할수 있다는 자신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일수 없는 신념으로 뿌리를 내리였다.

이 시기에 와서도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는 각당, 각파의 립장과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여러가지 주의주장이 등장하여 대중을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리론들은 이러저러한 시대적, 계급적제한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때까지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가 그중 높은 형태의 투쟁이라고 본것은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였다. 이 투쟁에는 민족주의 좌익진영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일독립운동자들과 애국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이 독립군부대를 조직해 가지고 무장투쟁을 시작한 것은 독립전쟁을 해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믿었기때문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대에 의한 군사활동으로써만 독립을 쟁취할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테로전술만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도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잘 훈련시켜두었다가 쏘련,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 그들과 련합하여 독립을 이룩하는것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주장들은 어느것이나 다 일제와의 협전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군의 투쟁은 이러한 초지를 끝까지 관철할만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갖추지 못하였고 독립전쟁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는 강력하고 세련된지도부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투쟁을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뒤받침할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꾸리지 못하였다.

개량주의리론가운데서는 《실력양성론》이라는 안창호의 《준비론》이 독립운동자들의 화제거리로 되고있었다.

우리는 안창호란 인물자체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고스란히 바친 청렴하고 향심적인 애국지사로 존경하고있었지만 그의 리론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았다.

상해립시정부의 비폭력적독립 운동로선도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였다.

상해립시정부가 조직된지 얼마 안되어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낸 존재로 된것도 이 단체가 시종일관 한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폭력적인 외교로선에 매달려 세월을 보냈기때문이였다. 그런것만큼 군사로선을 절대화하고있던 독립군은 이것을 한사코 랭贻하였다.

조선을 국제련맹의 위임통치 하에 두어달라고 애걸한 리승만의 청원에 대해서는 무슨 로선이라고 말할것도 없으며 민족주의 우파가 제창한 《자치론》 역시 민족의 독립정신에 배치되는 하나의 봉상에 지나지 않았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지 못한채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선행세대의 전략이나 로선이 가지고있는 보편적인 약점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외면한데 있었다.

선행세대의 운동자들은 한결같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무시하고 있었다. 수백만 대중의 조직된 힘에 의거해야 일제를 타도할수 있겠는데 우리 나라의 반일운동자들은 혁명도 독립전쟁도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것으로 알고있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이런 립장에서 기초축성은 별로 하지 않고 몇몇 상층인물들로써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당을 만들었으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서로 분렬되어 여러해동안 헤모니싸움을 벌렸다.

선행세대의 로선이나 전략들은 또한 조선의 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한 심중한 약점

을 가지고있었다.

나는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리론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도리론을 마련한다고 하여 10월혁명의 경험 같은것을 통채로 받아들여도 안되었고 국제당이 그 어떤 만병통치의 처방을 가져다줄것 같이 기대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도 안되었다.

《우리가 믿을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혈전을 벌리자.》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자주 울리였다.

나는 이런 충동을 안고 오늘 우리가 주체라는 이름을 달아서 부르고있는 사상을 보고의 구절 구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보고에 담으려고 한 내용들은 모두 우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들이였다.

나는 그때 특히 무장투쟁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보고에서 무장으로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벌릴대 대한 문제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으로선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것을 방침으로 확정하기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였다. 카륜에서 이 문제를 방침으로 채택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조건에서도 나는 무장투쟁을 하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새형의 군대를 창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지 바로 군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반일군사력량이 분렬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친필비에 비낀 통일념원



우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남기신 친필을 새긴 비

사무처는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지는 7월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한생을 가슴뜨겁게 둘러보는 겨례의 마음은 판문점에 세워진 역사의 친필비에로 달리고 있다.

## 《김일성》

1994. 7. 7. 』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건에 남기신 역사적친필에는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필생의념원이 담겨져 있다.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통일을 떠나 사신적이 없으시였다.

자신께서 우리 민족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정도로 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그이이시였다. 그 헌신의 나날속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들과 친히 보아주시고 비준하여주신 통일과 관련되는 문건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우리 민족이 통일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판철해야 할 근본원칙뿐아니라 통일국가 수립의 방도와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담겨진 조국통일3대헌장에도 그이의 사색과 심혈이 뜨겁게 어려있다. 민족의 분렬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여 겨례에게 통일위업실현의 밝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어디 그뿐이랴.

통일되면 밀렸던 잠도 푹 자고 마음놓고 휴식도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생신날마저도 쉬지 않으신 그이이시였다. 그렇게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겨례에게 조국통일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시려고 통일을 위한 길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쉬임없이 걸으신 그이이시였기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 자신을 초불처럼 불태우신 것이다.

오늘도 겨례는 주체83(1994)년의 잊지 못할 나날을 눈물속에 돌이켜본다.

그해의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위업을 이루 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표시하신 그이께서는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민족분렬역사에 처음으로 되는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신 그이께서는 회담의 성과를 위하여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바로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준비를 마무리하시느라 분초를 쪼개가며 사업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밤을 지새우시며 조국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친필존함으로 비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김정일동지에게 문건을 비준했다고 보고하라고, 이대로만 하면 잘될것 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였다.

정녕 동서고금 그 어느 역사의 갈피에도 수령님처럼 80고령의 난로하신 몸으로 생의 마지막순간 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인간, 절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

언제인가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1994년 7월 7일, 이날은 겨례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념원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날이다.』라고 말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성스러운 한생의 로고와 필생의 념원이 깃들어있는 조국통일위업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건설장

- 려명거리건설지휘부 일군 김진성과 본사기자의 문답 -

문: 려명거리건설장에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다. 하부구조건설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건축물들이 뚜렷한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며 하늘높이 올라가고 있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려명거리』라는 특색 있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지 그에 대하여 알려줄수 있는가.

답: 거리의 이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어주시였다.

지난 3월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너를 빛내리라는 역사의 맹세를 다지신 통남산을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라고 하여 그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형성 안과 조감도, 모형사관 등을 보시면서 려명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심을 주시였다.

문: 거리건설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까지 끝나는가.

답: 솔직히 말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 전쟁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던 때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실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설계일군인 나도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

그처럼 정세가 엄혹한 시기에 옹근 한개 거리건설을 발기하고 힘있게 내민다는것은 누구나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러나 원수님께서 결심하시고 건설방향과 방도 그리고 건설자재보장문제까지 다 해아려주시여 우리는 주체105(2016)년 4월 3일 착공식을 가지고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말까지 완전히 끝내기 위하여 이렇게 만리

는 건물들을 일떠세우고 있다.

문: 려명거리건설에서 기본은 무엇인가.

답: 려명거리건설에서 기본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 타아소, 유치원, 세탁소, 체신소 등 공공건물들과 봉사망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것이다. 우리는 살림집들과 김일성종합대학 3호, 4호교사건설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거리를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만들기 위해 설계 및 시공단위들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필요한 조명과 난방문제를 태양빛전지와 지열, 자연채광 등으로 해결하며 건물옥상들에 온실을 조성하여 건축물의 록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해나가고있다.

문: 거리건설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까지 끝나는가.

답: 솔직히 말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 전쟁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던 때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실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설계일군인 나도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

그처럼 정세가 엄혹한 시기에 옹근 한개 거리건설을 발기하고 힘있게 내민다는것은 누구나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런 일이 아닌가.

\* \* \*

마의 속도로 일정을 앞당겨가며 내밀고있다.

문: 건설규모에 대하여 말해 줄 수 있는가.

답: 지금 우리는 40여동의 살림집과 60여동의 공공건물을 건설하고 수십여개대상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있다.

이번에 우리가 건설하게 되는 살림집들 가운데는 70층, 55층, 50층, 40층, 35층을 비롯한 초고



총살림집들이 있는가 하면 7~8층짜리 살림집들도 있다. 물론 70층짜리 살림집을 지어본 경험은 없다. 그러나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통하여 쌓은 풍부한 경험은 건설의 성과를 담보해주고있다.

려명거리가 완공되면 조국에서는 해마다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하는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기존건설공법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주체조선의 건설속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리마의 속도로는 것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과시하게 될것이다.

\* \* \*

#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

만리마의 속도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조국에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지난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만 보아도 그렇다.

국방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소형핵탄두개발



파 탄도로케트전투부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과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련이어 성공하였는가 하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파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조국인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80마력뜨락또르와 농기계부문에서 새로 제작한 파종기, 두둑짓는 기계, 종합밭갈이기계, 분무기, 후치기, 감자수확기, 강냉이종합탈곡기, 이동식벼종합탈곡기 그리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새

로 개발한 115마력디젤기관을 리용한 5t급화물 자동차, 청진빠스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빠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제작한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수산부문에서 무어낸 《황금해》계열의 만능화된 고기배, 령남배수리공장에서 건조한 5000t급무역짐배…

조국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파 락관을 안겨 준 새형의 뜨락또르, 빠스, 화물자동차를 비롯

한 기계제품들은 다른 나라의 견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것이 아니라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를 가지고 만든것이다.

지난 5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들을 보아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새형의 뜨락또르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뜨락또르가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정말 멋있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이라고, 모든 기술적성능들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능력이 큰 새형의 뜨락또르를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뻐 하시였다. 그리고 농기계부문에서 새로 제작한 농기계들을 보시고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우리 사람들 의 체질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개발한 5t급화물자동차와 청진빠스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빼스도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를 가지고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 빼스,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기계제품들은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수입병을 뿐리뽑고 수입병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이 있어 조국인민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자라났으며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철

## 아름다운 래일을 오다



### - 미래상점에서 -

날마다 행복이 무르 익어가는 조국땅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미래상점과 다기능적인 종합봉사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끌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 기슭에 조화를 이루며 일떠선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는 말그대로 쌍둥이형제 같았다.

손님들의 그칠새 없는 발걸음에 이끌려 우리도 상점으로 들어섰다.

온근하면서도 아름 다운 조명아래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상점이라는듯 눈부 시게 반짝이는 원자자리길모양의 무리등과 대리석바닥, 조화롭게 배치된 매장 들과 그안에 진렬된 갖 가지 상품들…

1층으로부터 3층에 이르기까지 상점안을 꽉 채운 각종 가정용전자전기제품, 문화용품, 식료품, 체육용품, 일용품, 기호품들은 거의나 다 국산화된 상품들이였다.

특색있게 장식된 3층의 기호품매대에서 우리는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김광현을 만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상점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미래상점을 상업봉사기지



안해와 함께 미래상점을 찾은 김광현



의 본보기답게 잘 꾸렸다고,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늘여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상업봉사기지에서 봉사를 받고보니 그 사랑, 그 은덕에 더 큰 연구성과로 보답할 마음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것이 솟구쳐올랐다.

우리는 미래상점에서 기쁨에 넘쳐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습을 새겨안고 미래상점과 마주하고 있는 종합봉사기지에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종합봉사기지의 1층에는 전식한증과 습식한증을 할수 있는 아담한 한증탕들이 달린 남녀복을

탕과 물놀이장 그리고 소나무한증방과 소금한증방이 있었는데 모두 찾아온 손님들로 흥성이고 있었다.

2층에서는 각종 민족음식들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료리들을 비롯하여 110여 가지의 레스토랑과



### - 종합봉사기지에서 -

를 봉사하고 있었다.

갖가지 조명들이 비치여 환하고 눈부신 1층과 2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게 꾸려진 3층에서는 손님들이 여러가지 청량음료들을 봉사받으며 보통강반의 경치를 부감하는 것도 하나의 멋이였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한것은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의 모든 시설들이 다 국내산제품으로 꾸려져있는 것이였다.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나날이 부강해지는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았다.

봉사기지의 책임일군인 정향옥은 말하였다.

『우리 봉사기지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곳곳마다에 어려있습니다. 이런 봉사기지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인민들



이 최상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더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나갈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밟들고 -

## 자력자강의 기치를 들고

쇠돌생산기지의 하나인 재령광산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상반년도 쇠돌생산목표를 지난 4월까지 완수한 광산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사실 이곳 광산앞에 제시된 올해 쇠돌생산목표는 지난 시기에 비해 대단히 높이 세워진 목표이다. 그러나 광산에서는 목표수행을 위해 박토처리를 앞세우고 쇠돌밭을 넉넉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고 있다. 광산에서는 제기되는 난관을 어떻게 하나 자체로 뚫고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지혜와 힘을 합쳐나감으로써 주목할만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컴퓨터자동조종체계를 갖춘 30t급대차식 자동차권양장치를 자체로 설계제작한 것이다. 말그대로 박토를 실은 대형자동차를 대차에 싣고 그대로 권양기로 버려장에까지 옮겨놓는 이 기술혁신은 그 능률이 대단하다. 자동차의 연유와 다이야 등의 소비를 줄인 것은 물론이고 박토처리능력은 거의 4배로 장성시키였다.

우리와 만난 광산일군 원영철은 말하였다.

『박토처리에서 혁신이 일어나니 그것은 그대로 착정과 채광 등 모든 부문의 생산성파로 이어지게 되었다. 승리광구와 금산광구의 착정기중대에서는 하루 200m 이상의 채광천공을 뚫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채광중대에서는 또 그들대로 300~400t의 쇠돌을 캐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성과로 하여 광산사람들은 자력자강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광산의 모

쇠돌생산성파의 비결을 과학기술에서 찾고



힘찬 동음을 울리는 착정기

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정신, 그 일본새로 일해나가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다. 하여 중기계수리 중대에서는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대형굴착기를 비롯한 중기계들을 자체로 수리하고 그 수리시간을 배로 단축하게 되었으며 공무직장에서는 많은 기계설비에 쓰이는 기름을 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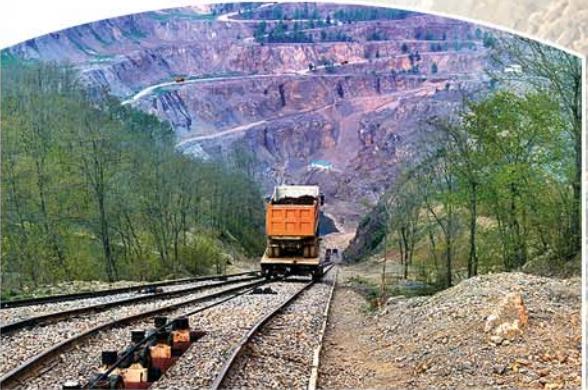
성과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광산에서는 룽철자화매소공정을 자체로 꾸려 지난 시기 버려더미에 있던 룽철광을 자칠광으로 전환시켜 많은 철정광을 생산하였으며 능력이 큰 합산광체개발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쇠돌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도 열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광부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과 후방공급기지들도 자체로 더 잘 꾸려 그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고 있다.

광산의 기술일군인 계성근은 말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자강의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더 많은 쇠돌을 생산하여 나라를 밟들어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대차식자동차권양기를 자체로 설계제작하여 박토처리능력을 높이고 있다.





## 철령아래 사과꽃풍경

# 백도라지에 깃든 마을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밭들어모시려는 조국인민의 티없이 맑고 순결한 마음이 비껴있다.

선교구역 대홍초급중학교 3학년 학생 왕려미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올해에만도 1만 5천포기의 백도라지를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심었다.

3년 전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던 려

미는 수목원에서 꽃들이 피여 난 백도라지밭을 보게 되였다.

그는 백도라지밭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전국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순결한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는 백도라지꽃송이들을 가슴에 안아보았다.

(나도 오빠, 언니들처럼,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백도라지를 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려미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며칠후 려미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함께 개성시

에서 사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려미가 찾아오게 된 사연을 알게 된 할머니는 그런 일에 무었을 아끼겠느냐며 터밭을 전부 내주었다. 할머니는 나무와 달리 백도라지는 1년생을 심어야 만 새 토양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백도라지를 심고 자래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은근히 걱정하였다.

그때 왕려미는 조용히 말하였다.

《할머니, 내 손으로 키워낸 백도라지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심고 싶어요.》

그의 눈앞에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의 백도라지밭이 어려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조국인민의 순결한 량심과 깨끗한 의리심이 비낀 꽃송이들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백도라지를 처음 자래위보는 지라 걸리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려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물과 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뛰여다니는 려미를 보며 할머니와 동네사람들도 허를 차운 하였다.

그후 정성껏 키운 1년생 백도라지들을 려미는 잔뿌리 하

나 상할세라 차곡차곡 넣은 함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을 찾아 백도라지밭에 한포기, 한포기 정성껏 심었다.

려미의 소행을 그의 동무들은 퍽 후에야 알게 되였다.

오늘도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서 향기를 풍기는 백도라지꽃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밭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밭들어나가려는 왕려미를 비롯한 조국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진성



...  
한지붕아래서  
한이불을 덮고 자며  
어린시절 정을 나눈 혈육들이  
하나둘 가기 전에  
그리움이 가기 전에  
북남의 겨레들이여  
통일합시다  
통일합시다  
...

이것은 시 《그리움이 가기 전에》의 한 구절이다.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 오설림은 이 시구절에서 착상을 찾고 조선화 《갈라져 70년》을 창작하였으며 그림에도 이 시구절을 써넣었다.

70년 세월 헤여졌다가 남녘에 사는 동생과 뜻깊게 상봉하는 형,

중절모가 벗겨져 땅에 딩굴고 지팡이도 땅에 내버려진채 형에게 무릎을 끓고 인사하는 동생의 모습은 그 진실성과 생동성,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만수대 창작사적으로 진행된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 작품이 어떤 체험속에서 창작된 것인지다는 몰랐다.

『작품은 체험의 산물이라고도 말할

오설림이 창작한 작품들의 일부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작품을 아버지의 이야기와 시를 들으며 오랜 세월 구상하였습니다.》라고 오설림은 이야기하였다.

오설림은 조국에서 관록있는 시인이었던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인 오영재선생의 아들이다.

오영재선생은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어 며칠만에 남녘땅인 자기 고향이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해방된 감격을 안고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전쟁 3년간의 나날에 그는 조국의 귀중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았다. 어느덧 전쟁은 끝났지만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볼 수 없었다. 미제에 의해 생겨난 군사분계선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재능있는 시인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로력영웅으로 자리났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남녘에 있는 어머니

에게,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한글에서 한글을 생각하는 마음》, 《복수자의 선언》, 《자리가 비여있구나》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자식들에게 늘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곤 하였다.

오설림



오설림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시와 그림 공부를 하였다.

그래서 그는 군사복무의 나날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을 처녀작으로 내놓았는데 그것은 인민군적인 미술전시회에서 1등을 하였다. 그때 창작하였던 페화 《향도성 우러러》는 국가소장품으로 되였다.

그후 설림은 평양미술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치었으며 졸업후에도 조국통일주제의 여러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중에는 우표 《문익환복사》를 비롯한 작품들도 있다.

만수대 창작사에서 창작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그는 현실주제의 작품과 함께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러면 어느날 그의 아버지가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으로 서울에 나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혈육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그리움이 식기 전에, 이 그리움이 가기 전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밀에 통일을 이루하자고 절절히 이야기 하였다.

후날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설림은 조선화 《갈라져 70년》, 《통일의 진로를 따라》를 머리속으로 구상하게 되었으며 주체103(2014)년에는 조선화 《갈라져 70년》을 전시회에 내놓게 되였다.

『난 통일이 멀리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통일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외세를 몰아내고 6. 15 북남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리행해 나간다면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입니다.

나도 남녘의 혈육들을 만나게 될 그날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오설림은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 상식

# 우리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넓이

우리나라는 아시아대륙 동쪽기슭의 거의 가운데에 놓인 맑은 아침의 나라이다.

경도상으로는 E(동경)  $124^{\circ} 10' 45''$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끝)로부터 E(동경)  $131^{\circ} 52' 28''$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쪽끝) 사이에, 위도상으로는 N(북위)  $33^{\circ} 06' 45''$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끝)로부터 N(북위)  $43^{\circ} 00' 33''$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 사이에 놓여있다.

물의 서쪽끝은 평안북도 룽천군 진흥구의 서쪽끝 [E(동경)  $124^{\circ} 18' 38''$ ], 동쪽끝은 라선시 선봉지구 우암동 동쪽끝 [E(동경)  $130^{\circ} 41' 45''$ ]이며 남쪽끝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쪽끝 [N(북위)  $34^{\circ} 17' 31''$ ], 북쪽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의 북쪽끝 [N(북위)  $43^{\circ} 00' 33''$ ]이다.

우리나라의 북쪽은 아시아대륙과 잇닿아있으면서 중국의 동북지방 및 로씨야의 원동지방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

국경선의 길이는 1 369km이다.

동서남 세면은 바다와 접해 있는데 서쪽은 조선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동쪽은 조선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렬도와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은 조선남해와 접하여 있다.

남북간의 제일 긴 길이는 1 144. 59km(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끝)이며 반도부분의 길이는 1 012. 13km(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쪽끝-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쪽끝), 동서사이의 너비는 645. 25km(황해남도 통연군 장산곶-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쪽끝)이며 폭지의 너비는 348. 72km(황해남도 통연군 장산곶-강원도(남) 양양군 강현면 바다)이다.

우리나라의 넓이는 22만 3 973km<sup>2</sup>로서 세계륙지넓이의 약 665분의 1, 아시아륙지넓이의 약 198분의 1이다.

\* \* \*

## 유모아

# 들어갈수 없는 제집

어느날 저녁 한 교수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는 문앞에 와서야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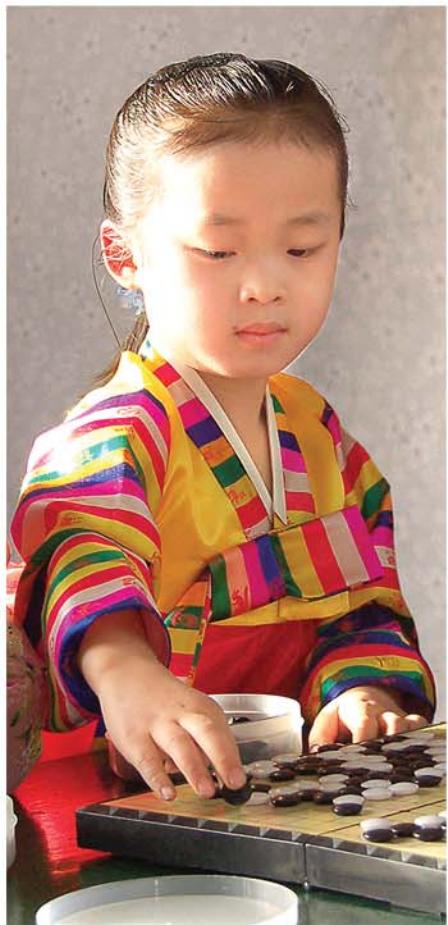
하는수없이 그는 문을 힘껏 두드렸다.

한참만에야 안해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야밤삼경이라 안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선생님, 교수선생이 집에 안계셔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교수는 습관적으로 『그럼 좋습니다. 래일 다시 오지요.』라고 말하였다.

\* \* \*



림미경

## 나이린 바둑명수

올해 7살,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자신만  
만하게 바둑판앞에 앉은 림미경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평안남도 턱천시 은덕  
유치원 높은 1반에 다니였다. 복스럽게  
생긴 얼굴도 귀엽성스럽지만 바둑 또한  
단수높게 두는 모습은 참으로 볼만하다.

놀라운것은 미경이의 바둑상대가 같은  
또래를 벗어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  
학교학생들, 때로는 어른들도 있는것이다.  
미경이는 바둑돌을 칠 때면 항상 검은색  
돌을 가지지만 먼저 시작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바둑돌의 흰색은 나이가 많

은 사람이 가지는것이례의로 되여있고  
검은색의 돌을 쥔 사람이 먼저 시작하게  
되여있다고 볼 때 미경이가 바둑에서례의는  
지켜도 좀처럼 먼저 수를 쓰려고  
하지 않는것은 그만큼 그의 바둑수가 높다는것을 말해준다.

한동안 그의 바둑수를 지켜본데 의하면  
미경은 확실히 나이에 비해 수가 엉뚱한가 하면 2~3수를 내다볼 정도로 깊었다.  
그 엉뚱하고 깊은 수로 미경이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기권시키거나 압도적 점수차이로 물리치기도 한다.

우리는 경기를 끝낸 그를 만나보았다.  
우리가 찾아온 취지를 알게 된 그는  
『우리 선생님이 배워주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도교원을 빤히 쳐다보는것이였다.

칭찬받을 때조차 선생님부터 먼저 생  
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였다.

류정순지도교원의 말에 의하면 사실  
미경이는 유치원시절 바둑을 배우기 전  
에 성악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던 어느날 동무들이 바둑두는것  
을 한동안 눈여겨보던 미경이가 자기도  
바둑을 두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지도교원이 바둑수가 제일 어린 동무와  
두게 하였더니 인자 미경이가 이기더라는  
것이였다. 이어 다른 아이들을 번갈아  
대보았지만 승패는 모두 같았다고 한다.

확실히 미경이는 기억력이 비상하고  
속셈수준이 높았다.

그리하여 그는 교원의 눈에 들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바둑을 배우게 되였다.

한창 물이 오르는 봄싹이란듯 미경이  
의 실력은 나날이 높아져 1년후에는 수  
준이 상당해졌다. 하여 미경이는 시에서  
진행되는 청소년들의 바둑경기에서 1등  
을 하였으며 이어 전국도대항군중체육  
대회-15에서도 1등을 쟁취하였다.

그에 대해 미경의 어머니 김영화는 말  
하였다.

『정말 딸애의 성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 옳은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훌륭한  
선생님들을 키워준 사회주의조국이 아  
니고서야 제 딸이 어떻게 그런 성파를  
거둘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  
거워집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기철

##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가는 녀성들

조국에서는 어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가.

강의하고 근면하며 고상하고  
의리심깊은것이 조선녀성들의  
미덕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정  
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가  
는 여성들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을것이다.

### 보답의 일념속에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  
학 정보도형학강좌 강좌장 박사  
최춘화는 늘 나라의 은덕을 가



최춘화

슴에 새겨안고 그 보답속에 일  
하고 있다.

그는 두 자식과 남편이 있는  
여성이지만 여성인기에 앞서 교  
원으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도 훌륭히 수행해나  
가고있다. 다매체정보처리와 콤  
퓨터도형학, 자동조절기설계를  
비롯한 가치있는 도서들을 내놓아  
후대교육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그는 어느날 새로 건설된 중  
앙식물원 김일성화온실을 찾게  
되였다고 한다.

활짝 피여난 김일성화를 돌아

보던 그는 그곳에 온습도자동조  
종체계가 서있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온습도자동조  
종체계를 자기가 해결할것을 스  
스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연구사  
업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가정을 돌보고 교육사업도 해야  
하는 그가 연구사업까지 도맡아  
하다나니 매우 힘이 들었다. 그  
러나 그는 위인의 존함이 모셔

진 불멸의 꽃 김일성화에 자기  
의 깨끗한 마음을 더해 가려는 일  
념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끌내 성공하였다. 뿐만아니라  
수자식영화를 위한 종합편집체  
계를 완성하여 위대한 수령님들  
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영화문화들을 더 밝고  
정중히 수록하는데 커다란 기여  
를 하였다.

그는 여성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도 보행로보트  
를 새롭게 개발하여 자동화부문  
의 박사의 영예도 지니였다.

###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지닐 때…

인간생명의 기사인 의사에  
게 있어서 환자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은 불가항력적인  
병도 기적적으로 고칠수 있다고



옥현덕(가운데)

평양산원 종합실험검사과 과장  
박사 옥현덕은 말하였다. 옳은  
말이다.

언제인가 록농군이 나오는 환  
자상태를 보게 된 그는 생각이  
많았다. 물론 그때까지만 하여  
도 이런 환자에 대한 신약은 있  
었지만 완치률은 적었고 그 후  
가 있는것으로 하여 소기의 성과

가 이루되지 못하고있었다.

하다면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  
으로 내려오는 고려약을 적용한  
다면?

그는 이런 생각을 거듭하던  
그에 어느 한 식물에 주목을 돌  
리게 되었다. 그 식물로 말하면  
예로부터 선조들이 각종 병치료  
에 이용하던것이였다.

그는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였  
다. 때로는 주저앉은적도 있었  
지만 그는 자기를 채찍질하며 힘  
을 내였다.

드디어 그는 록농군을 완전히  
제거할수 있는 약물을 내놓게 되  
였으며 이어 여러가지 질병들을  
치료할수 있는 약들을 련이어 개  
발함으로써 당시로서는 고치기  
힘들다고 하던 난치성질병환자  
들을 수많이 소생시켰다.

『난 내가 남다른데가 있어  
효능높은 약을 개발했다고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환자들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연구  
사업을 하였을뿐입니다. 어머  
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듯이 말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옥현덕은 이 성파로 하여 박  
사학위를 수여받았다.

### 과학자의 탐구자세

30대에 인공혈관의 국산화를  
완성한데 이어 40대에는 심장판  
막화장용 발룬카테테르의 국산  
화실현이라는 성과를 이루한녀

김옥분



성과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방직연구소 실장 김옥분이다.

그는 방직전문가이다. 그러한 그가 의료용섬유제품을 연구하게 된 것은 당시 인공혈관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는 우리 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인공혈관을 만들어낼 과학자의 야심을 안고 스스로 이 연구과제를 맡아안고 미지의 초행길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갔다.

마침내 그는 결심대로 국산화된 인공혈관을 내놓게 되었으며 이어 정맥치료용압박붕대도 개발하게 되었다.

성파에 자만을 모르는 그는 대담하게 심장판막증용으로 리용되는 발룬카테테르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발룬에서의 연구와 그 국산화는 성공할수 있었지만 카테테르개발은 잘 안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녀성의 몸으로 그만한 성파면 대단한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탐구의 길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렇게 10여년간의 연구사업끝에 그는 드디어 발룬과 함께 카테테르도 완전히 국산화하는데 성공하게 되였다.

지금도 그가 개발한 연구성파로 하여 손쉽게 심장병을 고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하는 말이 있다.

왜 학위를 받지 않는가고…

그럴 때마다 그는 첨단연구과제가 끝나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놓고는 그렇게도 야심드높은 그가 자기를 위해서는 계속 양보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녀성과학자들이 있어 조국은 더욱더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 높은 의술, 뜨거운 정성

평양시 중구역에 가면 남달리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료일군들이 있다.

그들은 다름아닌 중구역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다.

단지 중앙병원 부럽지 않게 훌륭히 꾸려진 치료예방기지의 주인들이여서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단과 치료, 지극한 정성으로 주변구역뿐아니라 지방에까지 소문이 자자해 서이다.

하다면 이곳 의료일군들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은 어디서부터 오는것인가.

어느날 밤 병원으로는 최중증상태에 빠진 주민이 실려들 어왔다. 상태는 시간을 다투었다. 중태에 빠진 환자를 그대

## 수술장에서



로 상급병원으로 파송해야 하는 의료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고래쳤다고 한다.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자.)

이 사실을 계기로 의료일군들은 병원의 치료예방사업에 서 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떨쳐나섰다.

그에 맞게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상급병원과의 협의회를 자주 가지였으며 그 과정이 실천과 밀접히 결부되도록 하였다.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자질이 높아질수록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곳 의료일군들은 중태에 빠진 환자의 소생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쳤으며 환자들의 치료회복을 위해 집에서 보약재들도 가지고나와 친혈육의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환자들과 침식을 함께 하며 70여일간의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려 최중증환자를 끌끌



환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실험검사실에서

내 소생시킨것을 비롯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환자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벌린 데는 수 없이 많다.

그 나날 의료일군들은 환자들로부터 『우리 의사선생님』이라고 정답게 불리우게 되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진단설비와 치료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 과정에 병원에서는 현대적인 진단설비들을 마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감별하고 그에 맞는 치료대책을 세웠을뿐아니라 상급병원파송률을 거의나 줄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시기 중앙급병원들에서나 하던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수술도 자체로 하고 수법치료를 비롯한 고려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기술부장 정순이는 말하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헌신, 이것이

우리가 거둔 성과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 잘하여 인간생명기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전 민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치과  
치료

기능진단과에서

돌보기교정검사를 한다.

## 로학자의 추억



오창복

지난 해 3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대표들 속에는 앞가슴에 금메달이 아니라 박사메달을 번쩍이는 한 로학자가 있었다.

그는 당시 조선체육대학 과학부 학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오창복(현재 조선체육대학 체육과학연구소 정보자료연구실 연구사)이었다.

오창복은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지난 수십년간 거목을 자래우는 밀뿌리와도 같이 나라의 체육과학발전을 위한 길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왔으

며 그 과정에 후보원사 교수

박사로 성장하였다.

대회의 연단에서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토론하는 체육인들을 바라보며 로학자는 감회 깊은 추억의 세계에 잠겨들었다.

이역땅에서 온갖 민족적 설움을 느끼며 살아오던 오창복은 주체61(1972)년 10월 조국의 품에 안겨 희망대로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하였다.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펼치도록 하여준 나라의 은정 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생이 되던 날이였다. 그

심을 내렸다. 체육을 과학화 할 쉽지 않은 선택을 하였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무거운 측정기구들을 등에 지고 온 나라 방방곡곡의 소학교, 중학교들을 빠짐 없이 찾아다니며 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 운동속도 등을 수자화, 자료화하였다.

오창복으로서는 초행길이였지만 자기 스스로가 택한 그 길이 나라의 체육과학발전의 더딤

경기마다에서 우승하도록



대원군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죽은 왕의 뒤를 이을 자손이 없어 왕족가운데서 다른 집 자손이 왕으로 되었을 때 그의 친아버지를 높여 부르던 호 칭이다. 대원위, 대원왕, 국태공이라고도 불리웠다.

제14대 왕 선조와 제25대 왕 철종, 제26대 왕 고종은 다 선대 왕들이 대를 물려줄 자손이 없어 왕족가운데서 뽑혀 왕자리에 올라 앉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로부터 이 세 왕의 친아버지들은 모두 대원군으로 불리웠는데 선조의 아버지 리초는 덕흥대원군, 철종의

아버지 리팡은 전계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리하옹은 홍선대원군이라고 하였다. 당시의 법규정에 의하면 대원군은 왕의 본처 아들인

대군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게 되어 있었다. 왕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대원군이 사실상 최고의 집권자로서 봉건국가의

돌이 되고 밀뿌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언제 한번 힘든 줄을 몰랐다. 불타는 열정 속에 마련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운동 능력 발달에 대한 그의 연구론문은 체육선수선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기초로 되었다.

그후 조선체육대학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사 겸 국가종합체육단 수영감독의 중임을 맡은 그는 체육운동과정에 일어나는 인체의 생리적 변화와 그 조절 방법들을 연구하여 선수들의 몸상태가 경기를 할 때 최고수준에 이르도록 과학적으로 안발침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내세웠다.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때까지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선수들의 기록이 오르내리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으로 그는 사색의 초점을 모아갔다.

그는 자기가 내세운 목표 실현을 위해 전공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이고 생화학, 유전학 등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체로 익힌 또 하

나의 외국어는 세계체육계의 발전 추세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가 10년간에 걸친는 부단한 실험과 퍼터는 탐구글에 완성한 높은 급 수영선수의 《과학적 훈련 조종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인 학술토론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종목의 훈련 교수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되였다.

그는 체육과학분야에서 삶의 자족을 남기던 나날에 자기의 박사론문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영선수들이 공화국 새 기록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체육과학부문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발명들과 30여 건의 소론문, 10여 권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 …

그는 깊은 추억 속에서 깨여

꽃피는 봄날에 가족과 함께



## 대원군과 부원군

대원군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게 되어 있었다. 왕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대원군이 사실상 최고의 집권자로서 봉건국가의

정치적 권력을 틀어쥐기도 하였다. 근래에 와서 대원군이라고 하면 보통 홍선대원군(1820년~1898년)을 가리킨다.

부원군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국왕의 장인이나 정1품 공신들에게 주던 명예 벼슬이다.

고려에서는 1355년에 여러 관료들을 부원군으로 임명하였다. 1362년에는 부원군의 벼슬 등급을 정1품으로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1418년부터 한때 부마(왕의 사

위)에게도 부원군의 벼슬을 준 일이 있었다. 1469년부터 정1품의 공신을 부원군이라 하였으며 이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법전인 《경국대전》에 고착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왕의 장인도 부원군이라고 하였다. 부원군의 벼슬은 앞에 본의 지명을 붙여 불렀다. 같은 부원군이 있을 때에는 다른 글자를 쓰기도 하였다. 이들은 봉건왕권의 비호밑에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권세를 부리였다.

\* \* \*

났다.

오늘도 오창복은 체육과학의 첫 걸음을 떼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체육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눈에 잘 띄우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체육선수들이 국제 경기들에서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날리는 공화국 기발 속에 그대로 어리여 있다.》

깨끗한 냥심과 의리로 수놓아가는 헌신의 그 길에 빛나고 있는 것은 미더운 체육선수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금메달이라는 고귀한 열매이기에 로학자의 과학 탐구의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 《평북녕변가》가 울리는 곳에서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취재길은 평안북도 넝변군으로 향하였다. 《평북

녕변 찾아가자 약산동대 찾아가자...》 우리에게서는 민요 《평북녕변가》가 절로 흘러나왔다.

그러느라니 바로 이곳에 미국의 뉴욕시에서 《대동면옥》을 운영하고 있는 김필성동포의 동생이 살고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형님과 동생의 소식을 이어주는 걸음이어서인지 마음마저도 즐거웠다.

우리가 넝변입구에 들어서는데 합각지붕을 추켜올린 옛건축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넝변남문이였다. 우리가 남문 바로 옆에 있는 철옹성에 사진기렌즈를 가져가는데 예닐곱살난 총각애에게 철옹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30대의

한녀인이 시야에 안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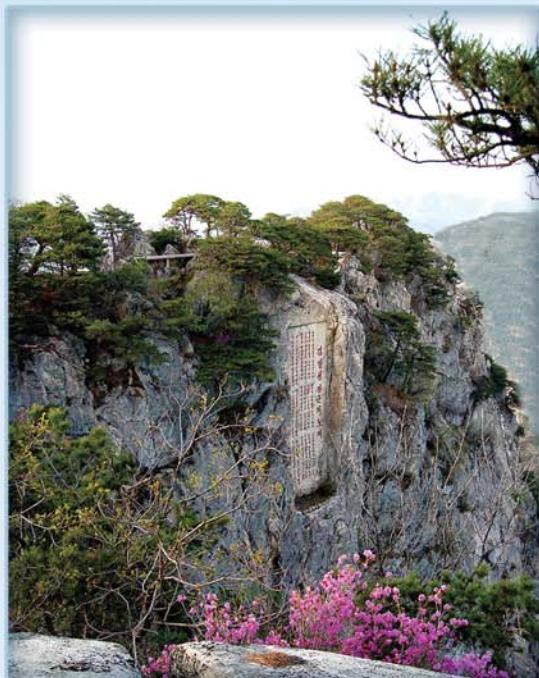
서로 통성을 하고보니 그는 읍에서 살고있는 리은미였다. 하여 우리는 상냥하고 친절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녕변군은 조선봉건왕조시기(1429년)부터 지방행정중심지로, 군사적요충지로 되여온 역사가 오랜 고장이랍니다. 평안도가 두개 도로 갈라질 때인 1896년에 평안북도의 첫 소재지로 되였는데 1907년에 도소재지가 의주로 옮겨간 후부터 군소재지로 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군에는 다른 지방에 비해 역사유적이 특별히 많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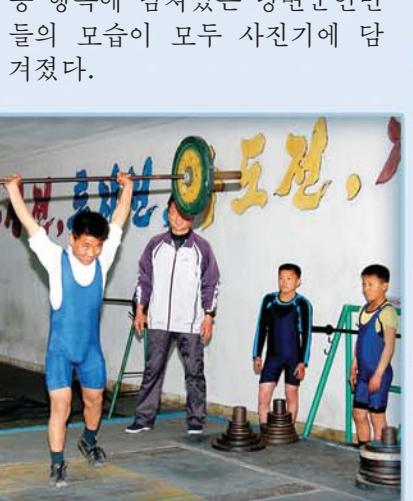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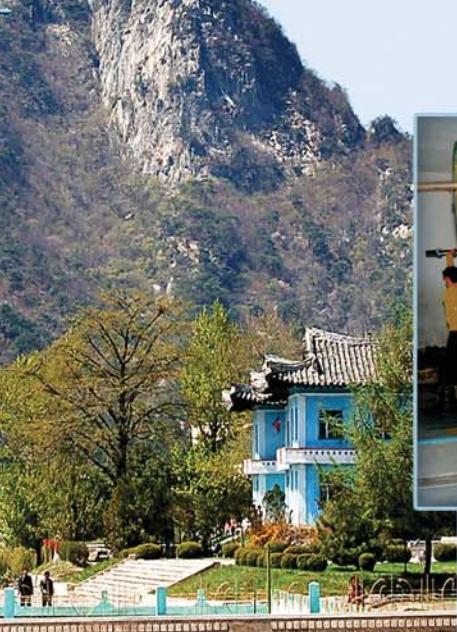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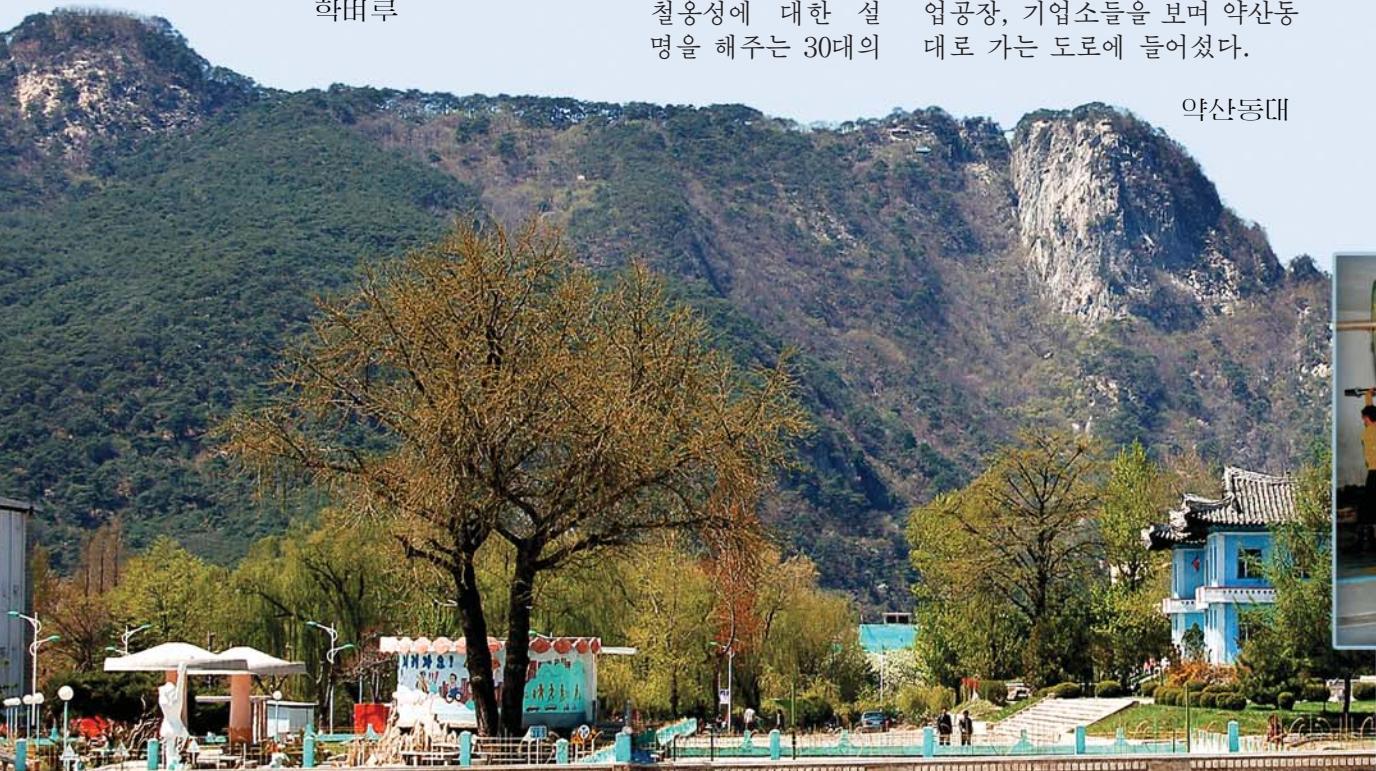
정말 그랬다. 남문, 철옹성, 객사문, 륙승정, 석운정, 복수구문, 천주사, 서운사 등 다瘤아보기에도 힘이 들었다.

우리는 가로세로 뻗은 도로를 따라 서있는 조선식기와집들과 다층살림집들, 교육, 보건, 문화기관과 편의봉사시설들, 지방공업공장, 기업소들을 보며 약산동대로 가는 도로에 들어섰다.

약산동대



화투루



녕변군청소년체육학교에서

조선식기와지붕을 한 군문화회관, 국수집, 살림집들과 아동공원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 이름난 넝변견직공장(명주실을 기본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비단천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 우리는 그곳부터 들려보기로 하였다.

공장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못이 눈에 띄었다. 륙승정이 있는 못이였다. 모란봉(녕변의 모란봉)의 달뜨는 구경, 남산의 해가지는 경치, 약산동대에서 들려오는 구성진 피리소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무술익히는 소리를 비롯한 여섯가지의 아름다운 운치를 감상할수 있다고 하여 《륙승정》이라고 부른다는 이곳에서 주위의 경치를 한동안 둘러보고 난 우리는 공장을 돌아보았다. 《평북녕변가》가 울리는 작업장들에서는 직포공들이 기대사이로 분주히 오가며 천을 짜고 있었는데 어느 직장에서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혁신자들을 볼수 있었다.

녕변견직공장뿐 아니라 군민병원에서 먼거리의료봉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청소년체육학교에서 기술을 높여나가는 력기선수들 그리고 유치원에서 노래춤을 익히는 어린이들의 모습 등 행복에 넘쳐있는 넝변군인민들의 모습이 모두 사진기에 담겨졌다.



녕변남문

어느덧 우리는 약산동대에 올랐다. 동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체38(1949)년 10월 약산동대를 돌아보신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었으며 헌시비 《약산동대에 길이 전하라!》도 있었다. 우리는 제일봉파 잇닿은 동대에서 버섯모양의 제일봉이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세운 천주사와 고려시기에 세운 서운사를 돌아보고 흰 비단필을 드리운듯 한 학벼루의 기암절벽에 새겨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두마리의 거부기가 나란히 놓인듯 한 거북바위를 비롯한 기묘한 바위들과 읍의 경치를 부감하였다.

볼수록 그 아름다움이 특이한 약산동대를 아쉬운 마음으로 내리며 우리는 김필성동포의 동생 김중현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도 《평북녕변가》가 울려나올줄이야. 이 노래를 들을 때면 큰아버지생각이 난다며 비단천에 아름다운 진달래를 수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녕변군인민병원 먼거리의료봉사실에서



녕변견직공장



## 보고싶은 언니에게

보고싶은 언니, 우리가 지난해 평양에서 만나 회포를 나눈 때로부터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란 나이가 들수록 한창 나이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의 상봉이 어제 련듯 눈에 선한데 말입니다.

언니, 그새 앓고 있던 당뇨병은 더 도지지 않았는지 무척 걱정됩니다. 조카들도 다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봉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손을 꼭 잡고 그저 눈물만 하염 없이 흘리던 언니의 모습입니다. 참, 나도 그랬지요. 내가 그때 왜 눈물만 흘리는 언니를 위로해 드릴 생각은 못하고 그냥 같이 울었겠는지… 그러나 나니 언니는 내가 만든 음식을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했지요. 생각해 볼 수록 후회되고 제가 야속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날과 달이 흐를 수록 언니가 더 보고 싶고 이제 언니와 만나게 되면 다시는 울지 않고 언니를 기쁘게 만 해드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니 생각이 나서 상봉의 그날을 그려 볼 때면 그때 언니가 미리 오늘을 다 예견하고 그랬는지 헤여지면서 『순희야, 언니가 보고 싶으면 우리 함께 찍은 이 사진을 보렴. 나도 네가 그리워지면 꼭 이 사진을 보련다.』라고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 이 동생은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꺼내보곤 합니다.

그러면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지금도 애국사업에 헌신하고 있을 언니의 모습이 안겨옵니다.

언니, 솔직한 말로 전번에 우리가 만나서야 나는 언니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언니가 혈육들과 친척들보다 조국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보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이 동생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언니를 커다란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안고 조국에 있는 나와 우리 가족도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인민반사업들과 힘을 합쳐 나라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반에서는 지금 마을을 새롭게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가정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동적으로 모범이라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인민반사업에 더 모범이 되고 부강조국건설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 하려고 합니다.

언니, 내 남편도 출가한 경희, 윤희와 사위들도 몸건강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자 동차련합기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맏사위가 생산에서 혁신을 이루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시설사업소에서 일하는 둘째사위도 일을 잘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위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을 보며 나는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더 잘해갈 결심을 가다듬군 한답니다.

언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보고 싶은 언



니와의 상봉을 기다리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남도 덕천시 삼탄동 51인민반  
리순희동생 씀

### 상식

#### 방안에 어떤 화분을 놓을 것인가

여러 가지 꽃과 나무들은 밤중이나 해빛이 덜 미치는 방안에서 공기 속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다시 말하여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앗아간다.

## 대외 투자관계의 확대 발전에 대하여 (1)

자주와 친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대외 투자관계를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공화국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대외정책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지역의 120여개 나라들과 대외 투자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대외 투자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노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합영, 합작기업투자를 적극 진행 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해외동포기업들과의 대외 투자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그들이 조국의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들과의 합영, 합작투자를 활발하게 벌리도록 유리한 법률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들을 적극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1970년대 말 일본에서 일본돈의 가치상승으로 기업들이 무리로 쓰러질 때 해외동포기업들이 조국과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기업파산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였으며 1990년대 초에 중국 동북3성 지역의 해외동포기업들이 기업경영범위와 상품판매시장을 확대 할 수 있게 조국의 공장, 기업소들과 합영, 합작을 적극 내밀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동포애적인 사랑과 조치들에 의하여 1980년대 초에 제정되어 실시되는 조국의 합영법들과 합작법들에는 외국투자당사자로서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뿐 아니라 해외조선동포가 된다고 특별히 지적되어 있으며 『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동포와 하는 합영,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과 같은 우대를 제공한다.』를 비롯하여 여러 법조항들에서 해외조선동포기업들이 조국에 조직하는 합영, 합작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가들에 비하여 보다 특혜적인 조건과 우대를 보장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화분과 관상용나무들을 방안에 많이 놓으면 건강에 해롭다.

이런 불리한 점을 막자면 방안에 2개의 선인장화분을 놓으면 된다. 선인장은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서 자라는 일종의 특이한 식물인데 원산지는 무더운 지역의 사막지대이다.

할데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조국에서 중국과 일본의 조선동포기업들과의 합영, 합작기업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사실은 이 기업들이 조국에 조직된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잘 찾아볼 수 있다.

대외 투자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노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다음으로 모든 외국투자가들에게 법률적 환경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토지임대법』 등 60종이상의 대외 투자관계를 규제하는 법들과 규정, 시행세칙들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법들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세계에 널리 소개되고 있다.

공화국 정부는 법과 규정들에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 투자장려와 제한, 최혜국 대우제 평등 국제 투자관계에서 준수되며 활용되고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규정하였다.

외국투자가들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부문을 비롯한 기계공업, 전자공업, 경공업, 농업, 림업 등과 하부구조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정부는 외국 투자당사자들과 합영, 합작기업의 재산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적극 보호한다.

우리 나라에서 합영, 합작기업들은 대외 경제성의 관리를 받는다. 대외 경제성은 국가적인 투자 전략과 계획에 따라 다른 나라 정부급 및 민간급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투자유치 활동을 직접 진행하면서 공장, 기업소, 무역회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다른 나라 투자자들과 진행하는 합영, 합작 투자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및 승인을 주며 공화국령역안에서 대규모의 하부구조 건설 및 천연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특허 협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한 국가적인 허가를 주는 것과 같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인민경제대학 강좌장 교수 박사 조창준

선인장은 낮에는 자기의 숨구멍을 열지 않고 수분증발과 산소방출을 중지했다가 오직 밤에만 숨구멍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이렇게 되면 방안은 산소가 차넘치는 깨끗한 환경으로 된다.

\* \* \*

# 《지팽이를 버리고 간다》

조선속담에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라의 고마운 혜택속에서 살아오다니니 조국의 귀중함에 대하여,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있는가에 대하여 다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말 65년 만에 조국을 방문한 나의 형님이 조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매각자에게 돌려지는 나라의 혜택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형님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름은 홍홍섭(81살)입니다.

형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군의 폭격에 오른쪽팔과 다리에 판통상을 입어 그때부터 지팽이를 짚고 겨우 걷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지팽이를 짚고 미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며 다리를 고쳐보려고 하였지만 종시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나이가 많아지면서 형님은 지팽이에 의지해 걸기도 힘들어 앓은병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던 형님이 죽기 전에 평양에 있는 동생들을 만나야 눈을 감을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 104(2015)년 9월말 평양으로 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동료들에게 의지하여 지팽이를 짚고 눈앞에 나타난 형님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형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색과 비슷한 나를 알아보았는지 놀라면서 지팽 이를 던지고 나한테로 다가오려 하였습니다.

나는 급히 달려가 형님을 부축하였습니다.

나와 형님은 이렇게 65년만에

상봉하였습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볼을 맞대니 뜨거운 그 무엇이 속에서 끓어넘치였습니다. 형님은 나의 등을 두드리면서 너를 못 보고 가는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성성하지 못한 형님을 보는 순간 나는 막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였습니다.

조국에서는 나의 형님이 조국에 도착한 그 다음날로 평양친선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형님은 후더운 인정미가 넘치는 병원에서 조국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을 추출하여 만든 《금당-2》주사를 맞으면서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병신취급을 받던 형님은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뜨거운 인정미와 정성앞에 눈물을 쏟고 또 쏟았습니다.

형님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얼마후부터 벌써 다리에 힘이 생긴다고 하면서 잠도 깊이 자고 식사도 맛있게 하였습니다.

집중치료를 받는 속에 차츰 형님은 지팽이를 짚지 않고 걸어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님은 너무 좋아 안내원과 동료들에게 《나를 좀 보시오. 내가 이제는 걷게 되었소.》라고 소리치며 보폭을 넓게 내짚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아직은 말할수 없어도 지팽이없이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문수물놀이장에 갈 때에도 앞장에서 걷는 나의 형님

을 보고 동료들은 너무도 희한하고 신기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동생과 좋은 의사선생들을 만나고 거기에 좋은 약까지 썼으니 다리가 날수 있었다고 축하해주었습니다.

형님은 조국을 떠나는 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조국에 와서 지팽이를 버리고 간다. 지팽이를 짚고 조국에 왔다가 성성해 걸어서 간다. 이 고마운 제도, 이 고마운 사람들 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이제는 한이 없다.』

전쟁에서 상한 다리, 65년동안 고치지 못했던 다리를 완치해 가지고 가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의 사회주



친척들과 함께 있는 완쾌된 홍홍섭동포(가운데)

의제도에서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내 조국을 위해, 사랑하는 나의 형님과 다시 만날 통일의 그날을 위해 나는 남은 생을 깡그리 바쳐 나가겠습니다.

평양시 순안구역 신성동 71인민반 홍창섭

#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삼니다》 (2)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처럼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지니였기에 그는 중국땅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사업에서도 언제나 모범이였다.

연길과 길림 등에는 그와 함께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전투와 락동강의 피어린 전투에 참가하였던 전쟁로병동포들이 많다. 김소녀동포는 그들과 함께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 관리를 스스로 맡아하고 있으며 눈이나 비가 오면 남먼저 수십리길을 달려와 눈을 치고 비물을 쓸어내며 온밤을 지새우곤 한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탄생일을 맞을 때에는 어김없이 전쟁시기에 입었던 군복에 훈장을 달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수령님들을 칭송하는 노래들을 감동깊이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끓게 하였다. 그들속에는 길림땅의 황진생, 홍영순을 비롯한 년로한 동포들과 비록 병으로 운신하기조차 힘들지만 아들며느리의 손에 의지하여 참가한 동포들도 있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더욱 커다.

돌이켜보면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최수봉부의장 그리고 김영녀, 김경수를 비롯한 연길과 길림, 심양과 베이징 등에서 살고있는 많은 동포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안고 지난 기간 많은 정성비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조국에 보내주었다. 그것들은 조국의 곳곳마다 그리고 최전연초소들에 모셔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전쟁로병 김소녀동포도 그러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화룡현 룽담촌 우심산 진펄에 찾아

가 그곳에서 자라는 울로초를 채취하여 그것으로 정성껏 신발깔개를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로 올리였다. 울로초를 채취할 때 손이 찢겨졌지만 동포는 자기가 만든 울로초신발깔개가 눈내리는 전선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이처럼 훌륭한 노래를 지으신데 대하여 격찬하는 한가지 간절한 소망을 안고

의를 다지였다. 연변예술극장에서 진행된 그들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심양과 베이징에서 무대에 올렸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역시 그려하였다. 당시 노래를 들은 수많은 동포들은 우리 장군님은 정말 음악의 천재, 대거장이시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때 그 공연에 참가하였던 베이징에 있는 김영철, 림정, 박춘우, 김철, 정사장, 손재익, 김경자, 김길엽, 오인자 등 많은 동포들을 잊을수 없다. 그들은 광명성절경축음악회를 훌륭히 진행하여 동포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연변예술극장에서 광명성절경축음악회를 진행 할 때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공연할 때 입었던 조선옷을 단정히 입고나선 장춘조선족예술관관장 황해월동포는 수령 흄모의 송가인 《장군님생각》을 감동적으로 불러 온 장내를 격동시켰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독창회를 통하여 조국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최경호동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그이를 칭송하는 노래 《장군님 모신 영광 전해다오》를 황해월관장과 함께 창작하였다. 그리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그와 함께 그 노래를 훌륭히 불러 조국인민들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노래는 영예의 금상을 받았다.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흄모의 마음을 안고 언제나 백두산에 자기들의 운명을 염고 사는 재중동포들을 조국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 글을 끝맺는다.

# 민족의 냄새를 안고 사는 작곡가

지난해 9월 중국의 연변지구에서는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항일전쟁승리 70주년 음악회』가 열리였다.

일제의 군사적 강점 밑에서 수난 많던 조선민족이 겪어온 만단 사연과 간고한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나날들, 조국해방의 환희와 나라의 주인된 긍지를 보여주는 조국의 노래들을 무대에 올린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조선의 음악에 대한 깊은



박학림

여운을 주었다.

이 음악회를 조직한 사람은 다른 아님 중국연변가무단의 동포작곡가 박학림이다.

음악생활을 한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갔어도 민족음악발전에 바쳐가는 그의 정열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부모들로부터 지난날 일제의 군사적 강점 밑에서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수난에 찬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족을 위한 음악가가 될 결심을 품게 되었다.

그럴수록 그에게는 음악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토의 마음이 커만 갔다.

그는 열심히 음악도서들을 탐독하고 꾸준한 창작활동을 벌려 마침내 연변탄광에서 문공단의 지휘를 맡아하게 되었다.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는 장춘영화촬영소 음악창작반과 중국통신음악학원 리론작곡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곳에서 예술활동을 벌리면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는 1993년에 중국연변가무단의 작곡가로 되었다.

작곡가로 되고보니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열망에 비해 볼 때 음악에 대한 리론과 파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로 하여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서 더 배우고 싶었다.

그의 이러한 소망은 평양음악대학(당시)에서 공부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풀리게 되었다.

대학에서 주체의 음악사상과 리론들을 배우고 탐독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민족음악발전을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조선민족음악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되었다.

그럴수록 그에게는 음악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토의 마음이 커만 갔다.

그처럼 갈망하던 진정한 민족

음악을 배우게 된 그는 대학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노래 16편이 실린 음악CD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탄생 60돐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담아』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리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중국연변가무단의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연변학림악단을 무었다.

그는 학림악단과 연변지구의 예술인들을 망라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고음악회』와 여러 계기에 경축공연들을 진행하였다.

공연들에서 그들이 훌륭히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흠토의 노래와 조선민요들은 언제나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주었으며 동포들에게는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안겨주었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동포들 속에서 수십년간 애국적인 창작공연활동을 벌리고 기악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피라는 과학연구사업을 한 그에게 조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술학 학위도 안겨주었다.

높은 음악적 기량으로 민족음악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그를 두고 악단의 성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의 지휘봉에는 마치도 마술의 힘이 있는 것 같다. 그가 지휘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음악의 세계에 빠져든다. 그것은 곧 높은 예술형상을 창조하는 힘으로 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인상기—

# 태양이 그리워 찾고 찾는다



내 나이 올해 92살이다. 이 나이가 되도록 계속 고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어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군 한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 그리워 고국을 방문한다고 말이다.

오늘 그이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고보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가 어려워 눈굽이 젖어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돌이켜보면 수령님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설움속에 짓밟히던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고국땅에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일찌기 14살 어리신 나이에 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여기 만경대고향집에 그대로 어려있는 것만 같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위인종의 위인이시며 조선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그이의 태양의 모습이 항상 마음의 기둥으로, 삶의 전부로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소중한 마음을 안고 고국을 찾고 또 찾는 것이다.

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소중한 마음을 변함없이 빛내일 것이며 애국사업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나가겠다.

중국 헤룽강성 네안시 전대섭

## 력사인물

# 민족적지조를 지킨 의병장

우리 나라 역사에서 민족적지조를 지킨 사람들 가운데는 류린석(1842년~1915년)도 있다.

그는 유생출신의 반일의병장이며 자는 여성, 호는 의암이다.

강원도 춘천부 가정리의 봉건유생집안에서 태여난 그는 당시 이름 있는 유학자이며 위정척사론자인 리항로(1792년~1868년)에게서 글을 배우면서 그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자신이 위정척사(바른 것을 지키며 그른 것을 물리친다는 뜻)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1894년에 조선에 대한 일본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이 시작되자 격문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 1895년 말부터 제천반일의병대의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지휘한 의병대는 이듬해 2월(음력 1월) 충청도의 정치군사적 중심지였던 충주에 진출하여 일본침략군을 격파하고 여러 고을의 친일주구들을 처단하였으며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충주를 방어하였다.

그해 가을 중국 료동지방으로 건너갔으나 그는 자주 국내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반침략애국사상을 고취하였다.

1904년 초 일제가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자 다시 국내에 들어

온 그는 평안남북도의 30여개 군에 유교단체의 이름을 단 『총유계』를 내오고 그것을 통하여 의병투쟁을 준비하였다.

류린석이 반일의병투쟁을 벌릴 것을 호소하자 그의 영향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의병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는 태천을 중심으로 평안남북도 일대에서 반일의병투쟁을 벌려 일본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1907년 가을로 씨여 연해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의병규칙』, 『관일약』 등 반일의병들의 활동 규범과 관련한 글들을 써서 발표하였다. 1910년 5월 13일 의군도 종재가 된 후 주체 3(1914년)에 남만 관전현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반일 활동을 하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류린석은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민족적 격분을 안고 반일투쟁에 나섰으나 봉건적 『충군애국』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반인민적인 봉건적 신분제도를 비롯한 봉건제도와 봉건왕권을 옹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민족적지조를 지키고 반일투쟁에 몸바치려고 애쓴데 그의 애국적 측면이 있다.

저서 『의암집』과 『소의신편』이 있다.

\* \* \*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고국방문

## 꽃피는 봄날에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동포들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에서

태양절을 맞으며 차상보부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 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조국방문의 나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께 경의를 표시하고 만경대고향집 등을 방문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보았다.

그리고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여러 행사들에도 참가하였으며 평양어린이식료품 공장,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국가선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특히 웅장하면서도 특색있게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동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응용과학기술2관, 장애자열람실을 비롯한 여러 열람실들을 돌아보면서 과학기술을 앞세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고



워 조국의 융성번영을 이루하려는 조국의 의지를 깊이 느끼였다.

그들은 지진체험실에서 지진의 세기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면서 웃음꽃을 피워올리였으며 어린이꿈관에서는 어린이가 된 심정으로 여러 기구들도 이용하였다.

차상보부의장과 김금자동포는 쪽무이로 조선지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박성길, 주계숙, 김송미동포들은 열람실의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그들은 전당이 짧은 기간에 안팎으로 흡잡을데 없이 건설된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런 전당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전당이라고, 이런 전당을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큰절을 드리고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과학기술전당에서

# 평양의 혁사유적을 찾아서 (8)

## - 광법사 -

평양의 혁사유적을 찾는 우리의 취재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찾은 곳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사찰 광법사입니다.

고구려 광개토왕시기 평양지방에는 많은 사찰이 건설되었는데 광법사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광법사는 1727년에 개건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1(1952)년 7월 미제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광법사는 그 후 나라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광법사는 해탈문, 천왕문, 대웅전, 동, 서 승당, 8각5층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들은 탑을 통하는 중심축을 따라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탑을 중심에 놓고 그 세면에 건물들을 세우는 사찰배치제도는 고구려시기 흔히 쓰던 수법입니다.

광법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웅장한 2층합각집으로 되여있습니다. 잘 다듬은 돌로 그(nn)하게 쌓은 기단우에 정면 3간, 측면 3간으로 된 대웅전에는 붉은 두리기등을 세우고 그우에 포식두공을 하였습니다. 대웅전안에는 석가불을 비롯한 3개의 불상이 놓여있고 행화도 있습니다. 대웅전은 눈부신 금단청을 하였습니다.

해탈문에는 죄끼리와 사자를 탄 동자상이 있고 천왕문에는 4천왕상조각이 있습니다.

광법사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련못과 1727년에 세운 광법사비, 그후에 세운 광법사증수단청비 등이 남아있습니다.

광법사비에는 대성구룡산의 9마리 룽과 99개 못에 대한 전설도 기록되어있습니다.

경치아름다운 대성산에 있는 광법사는 당시 선조들의 발전된 건축술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고구려를 비롯한 우리 나라 혁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치있는 자료로 됩니다.

광법사는 국보적 유적으로 잘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80(1991)년 2월 12일 광법사를 찾으시여 혁사주의적 원칙에 맞게 광법사를 훌륭히 복구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 하시였으며 평양과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우

리 나라의 곳곳에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혁사유적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혁사유적과 유물들은 인민들의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귀중한 유산이므로 잘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유선화



광법사비

대웅전



#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4)

민족의 유구한 혁사와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조선정통무도 택견-평양날파람과 같은 무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로 조선인민의 커다란 공지로 된다.

택견-평양날파람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서술한 혁사책들



도 고조선시기에 발생하고 고구려시기에 발전완성된 조선의 권법과 그 우수한 재주, 법수는 그대로 전해져왔다.

이 시기의 권법 역시 주먹질과 발길질을 겸한 위력한 무술체육이었다.

그리고 수박도 17세기경에

와서 《권법》으로 고쳐졌으며 그것은 《대전통편》과 같은 법전과 《무예도보통지》(1790년) 등에 고착되었다.

1790년(정조 14년)에 간행된 《무예도보통지》는 칼쓰기와 창쓰기, 권법, 곤봉술 등 여러 가지 무술동작을 그림으로 설명한 매우 희귀한 무술책이다.

조선봉건왕조 후반

기에 진행된 권법은 기본적으로 25개의 동작과 자세에 개개의 기본동작과 자세를 적용하여 48개의 동작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본동작의 반복훈련을 통하여 권법은 더욱 세련완성되었으며 그 위력은 한층 강해졌다.

그 과정에 권법은 발길질을 위주로 하는 독특한 무술체육인 택견으로 발전하였다.

택견은 기본적으로 발차기를 위주로 한 조선의 독특한 발차기무술이였다.

19세기 최영년이 쓴 《해동죽지》에서는 택견의 법에는 18법이 있으며 살법, 활법 등 여러 비법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택견은 위력이 대단하였고 훈련방법과 훈련체계가 독자적이고 특이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근세시기까지

도 택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0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손을 뒤집진 상태에서 머리받기나 발길질하는 상대를 발길로 걷어차면서 제압하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어깨에 날아서 뛰여오른 다음 발뒤축으로 뒤통수를 걷어차군 하였다고 한다.

모두발차기의 명수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택견외에도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도수무술들이 있었다.

평양날파람도 그중의 하나이다.

평양날파람은 주먹도 쓰면서 다리가 강한 조선사람의 체질적 특성과 정의감이 강하고 대담하며 완강한 민족적 성격이 반영된 발차기위주의 독특한 겨루기도 수무술이였다.

평양날파람은 고조선과 고구려에 시원을 두고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권법에서 계승발전한 택견의 집합체명칭이기도 하다.

평양날파람이라는 말은 무술

을 숭상한 고구려 사람들의 후예들이 많았던 평양지방에서 날파람 있는 젊은이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조상전래의 권법과 그에 기초하여 발전된 택견을 널리 활용한데서 유래되었다.

평양날파람은 민족의 슬기와 용맹, 애국심이 깃든 무술이였다.

평양날파람군들은 임진왜란시기 평양에 기여든 소서행장(고니시 유끼나가, ?-1600년)과 그 수하장수 소서비(고니시 히다노 가미 죠안, ?-1626년)가 거느린 술한 왜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임진왜란시기 평양10장사의 한사람이었던 전주복은 맨손으로 돌을 쳐서 깨뜨린다고 하여 일명 《전철권》(쇠주먹)이라고 불리웠는데 그가 어찌나 날파람 있고 주먹이 썼던지 왜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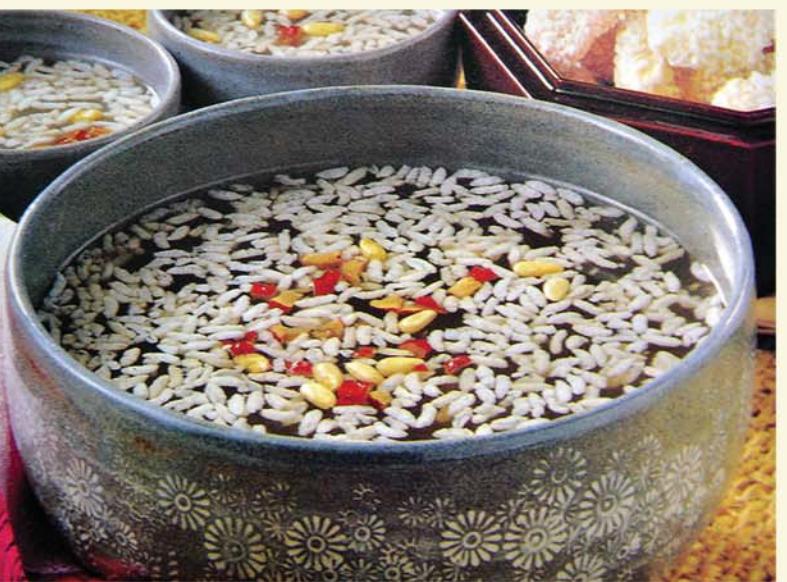
근대에 들어와서도 평양날파람군들은 외래침략자들과 파감히 싸웠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 통치를 영구화할 목적으로 민족의 냇이 깃들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였다.

일제는 1908년에 석전(돌팔매싸움), 평양날파람을 비롯한 모든 상무적 풍습을 금지시키는 한편 혁사적으로 내려오는 조선의 각종 무술동작들이 집대성되어 있고 나라를 지켜 싸우려는 조선민족의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군사관계로서 《무예도보통지》를 강탈하기 위해 각지를 돌아쳤다.

그러나 민족의 열을 간직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판서지방인 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책은 고수되었고 오늘은 국가의 옳바른 문화유적 유물보존정책에 의하여 인민대학습당에 소중히 보관되어 나라의 민족문화유산연구와 무술발전사업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강진성



민족의 향기

## 한여름철의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음식에는 《식혜》로 불리우는 음식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와 무우를 얼벌벌하게 양념하여 익힌 김치의 한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쌀로 지은 밥에 보리길금을 두어 당화시킨 음료입니다. 앞의 식혜는 오래전부터 함경도지방의 특산음식이라면 뒤의 식혜음료는 황해도지방의 특산음식입니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식혜음료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의 가정주부들 가운데는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에 묵은밥이나 찐 밥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건강에 좋은 음료를 만들어 식생활에 효과있게 이용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우리 어머니는 여름철이면 묵은 밥을 가지고 식혜를 해주곤 하였습니다. 식혜는 그 맛이 새콤달달하고 향긋할뿐아니라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을 이룬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음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집식구들 모두가 사이다나 단물 같은 것은 도리머리를 해도 랭동기에 넣었던 시원한 식혜만

사

화

## 한명의

## 관리로

이번호 《민족의 향기》란의 서술에 앞서 동포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싶은ことがあります.

『한여름철에 식혜음료를 맛보신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제가 물음을 잘못 제기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식혜는 음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재미나 명태, 도루묵기와 같은 물고기를 토막친것을 소금에 절구었다가 채친 무우와 함께 양념에 버무려서 삭힌 음식부터 머리속에

창조리가 고구려의 국상으로 있던 때인 어느해 가을이였다.

봉상왕이 여러 신하들을 궁실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모용의 군사들이 강하여 우리 변경에 자주 침입하므로 나라가 늘 불안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왕은 신하들에게 큰 걱정거리인 모용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모용이란 고구려 서북쪽에 린접하고 있던 모용선비족으로서 이때에 자주 고구려에 침입하여 백성들을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아가곤 하였다. 모용선비족이 바로 3년 전인 293년에도 변경에 쳐들어왔는데 봉상왕이 그를 몰아내려고 군사를 이끌고 신성에까지 나갔다가 적의 우세로 도리여 공격을 받고 꼭립까지 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때 신성의 성주인 고노자가 기병 500여명을 거느리고 왕을 맞이하고

적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봉상왕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용선비족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모용선비족이 며칠전에 또다시 침입하여와서는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때 다행히도 무덤을 파던 모용의 군사들이 갑자기 저절로 죽어넘어지고 파헤친 무덤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나와 귀신이 있는 것이라고 놀래여 달아났으므로 더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모용선비족이 변경에서 이렇게 날치며 소요를 일으키고 있으니 고구려의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모용군사들의 침노를 막아낼 방책에 대하여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어서 말해보아라.』

왕이 이렇게 독촉하자 한둘의 신하들이 의견을 내놓았다.

어떤 신하는 군사를 변경에 더 많이 상

## 건강음료-식혜

은 늘 맛있게 들군 합니다.

식혜음료가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마를 당분으로 분해하는 힘이 센 보리길금 속에 소화효소인  $\alpha$ ,  $\beta$ -아밀라제, 디아스테제 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싶어 저는 얼마전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급양학부 교원 정영철과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식혜는 밥을 지어 보리길금으로 당화시킨 다음 떠오른 밥알과 석류, 잣 같은 것을 띄워내는 음료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낱알을 보리길금으로 당화 및 발효시켜 식혜, 감주, 탁주(막걸리, 탁배기), 청주, 소주와 같은 음료를 만들어 식생활에 널리 이용하여왔습니다. 발효음료는 가공방법에 따라 알콜성분이 많은 것과 적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알콜성분이 많은 것에는 탁주, 청주, 소주, 과일술이 있으며 알콜성분이 적은 것(1~2%정도)에는 식혜와 감주가 있습니다.

흰쌀 50g으로 식혜를 만드는데 길금가루 25g, 사탕가루 25g, 잣알 5g이 듭니다.

먼저 길금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놓고 한시간쯤 있다가 잘 주물러 채에 밟아놓습니다. 앙금이 앉으면 맑은 웃물을 다른 그릇에 찌워놓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더운밥(50°C가 넘지 말아야 하며 묵은밥은 김을 올려 쓸수 있습니다.)을 우묵한 그릇에 담고 길금웃물을 부어 고루 저으면 밥은 알알이 떨어지면서 삐기 시작하는데 이때 뚜껑을 덮어 30~35°C의 온도에서 5~6시간 둡니다. 점차 삐으면서 밥알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모두 떠오르면 채로 밟아 물은 따로 담고 밥알은 맑은 물에 행구어 한곳에 둡니다.

다음 밟아놓은 물과 삐은 밥알을 행군 물을 한데 섞고 사탕가루를 넣어 센 불에서 재빨리 끓이면서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냅니다. 그것을 다시 채에 밟아 단지에 넣어 삐합니다. 공기와 같은 작은 그릇에 식혜를 적당히 담고 삐한 밥알과 잣알을 띄워 마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식혜음료 하나만 놓고서도 우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살림살이도 깐지게 하여왔다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에 좋은 음료인 식혜의 싱그러운 향기가 여러분의 여름철 식탁우에 더 훌륭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주시기자고 하였고 어떤 신하는 군사를 더 징발하여 변경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나라의 군사를 변경에로 집중시키면 수도를 비롯한 나라안의 방비가 허술해지므로 나라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취할 수 없는 방책이라 하였고 더 많은 군사를 징발하여 상주시키자는 것은 당시 홍년이 거듭 들어 백성들이 기근에 빠지고 나라의 재정도 고갈되어 있으므로 합당치 못하다고 들 하였다.

이때 국상 창조리가 한결음 나서며 말하였다.

『국경에 군사를 더 보낼 수 없고 나라형편으로 군사를 더 징발할 수도 없는 사정에서 오직 한 가지 방도는 변경을 막길만 한 관리를 한 사람 뽑아 임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이다.』

신하들은 그의 말에 어리둥절하여 창조리를 바라보았다.

왕도 이해되지 않는 듯 창조리에게 물었다.

『나라의 위기를 어찌 한 사람의 관리를 선발하는 것으로 풀수 있겠느냐?』

그러자 창조리는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였다.

『지붕을 엎으려면 서까래보다 적중한 대들보를 먼저 마련하여야 하는 법이옵니다. 군사를 아무리 늘이고 징발한다고 하여도 그를 맡아 거느릴 장수가 없이는 승산을 볼 수 없나이다. 그러니 변경을 지켜낼만 한 지략과 담력을 가진 사람을 끌라 맡기는 것이 선차이라고 봅니다.』

왕은 그 적임자가 누구인가고 창조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창조리는 몇 해 전 모용의 침입 때 큰 역할을 한 고노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변방의 방어임무를 맡기고 돌보아주면 그가 자기의 지략과 담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왕은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고 모용의 침입을 막을 임무를 주었다.

고노자가 지략을 펴가며 정사를 하고 변방의 방어를 강화하자 모용선비족은 그가 두려워 다시 침노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한명의 적임자를 임명하여 나라의 걱정이 덜어지게 되었다.

\* \* \*

#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 온 겨레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을 관철하여 기어이 가까운 앞날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울의지에 넘쳐있다.

전체 조선민족이 바라고 또 바라는 조국통일은 그 누가 거쳐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온 겨레가 하나와 같이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떨쳐나서야 이룩될수 있다.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현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현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이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현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나니며 외세에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자주의식을 좀 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조국통일의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위업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잊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기에 북파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은 접촉과 대화,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하며 북파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열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었다고 하여도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할것이다.

조국통일3대현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조선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

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키며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북파 남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이루하는데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을수 있다.

공화국은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으며 련방제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북파 남은 혁사적인 6. 15공동선언에서 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한 합의대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

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内外에 천명한대로 련방제방식의 통일실현에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루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북파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은 북파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이다.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판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가지며 《체제붕괴》를 추구할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립장을 지니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한다.

북파 남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지역에서부터 군사적긴장과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북파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는 문제도 중요하게 나선다.

북파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방해자인 미국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며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지 말고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뗄며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변국들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의 통일문제가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서 궁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북파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기어이 조국땅우에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 승리의 전통과 패전의 역사

1953년 7월 27일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이 조국의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날이다. 이로 하여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지고 내리막길의 시초가 열리였다.

당시 3년간의 전쟁에서 패하여 정전협정조인식에 참가한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는 《내가 정부의 지시를 집행하면서 얻은것이란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문에 수표한 첫 미군사령관이라는 보잘것 없는 명성이다.》라고 미국의 패전을 자인하였다.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 부정할수 없는 이 역사의 결과는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 날에도 변함이 없다.

1968년 1월 조국의 영해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되었을 때였다.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자 미국은 《몽둥이》를 휘둘러서라도 〈푸에블로〉호를 빼앗아와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어마어마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일촉즉발의 초기장상태가 조성되어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그 시각 조국에서는 미국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겠다는 폭탄 같은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기세앞에 겁을 먹은 미국은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결국 세계면전에서 사죄문을 써 공화국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미국대통령 존슨이 말한것처럼 《미국이 생겨 려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였다. 1950년대의 패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미국이였건만 이렇게 또다시 패전의 려사를

되풀이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EC-121》 대형 간첩 비행기 사건, 판문점 사건, 직승기 침입 사건 등을 조작하여 우리 조국을 어째 보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쓴 맛을 톡톡히 보군 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 조선반도에서는 조미사이의 핵 대결전이 침 예하게 벌어졌다. 또다시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선반도에 조성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국에서는 준 전시상태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라는 퇴성이 터져나왔다. 세계를 진감시킨 이 퇴성에 강타를 받은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하지 않으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데 대하여 공약한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대통령의 명의로 된 담보서 한까지 바치였다.

그 이후 새로운 조미핵대결에서도 미국은 패자의 운명을 되돌려세우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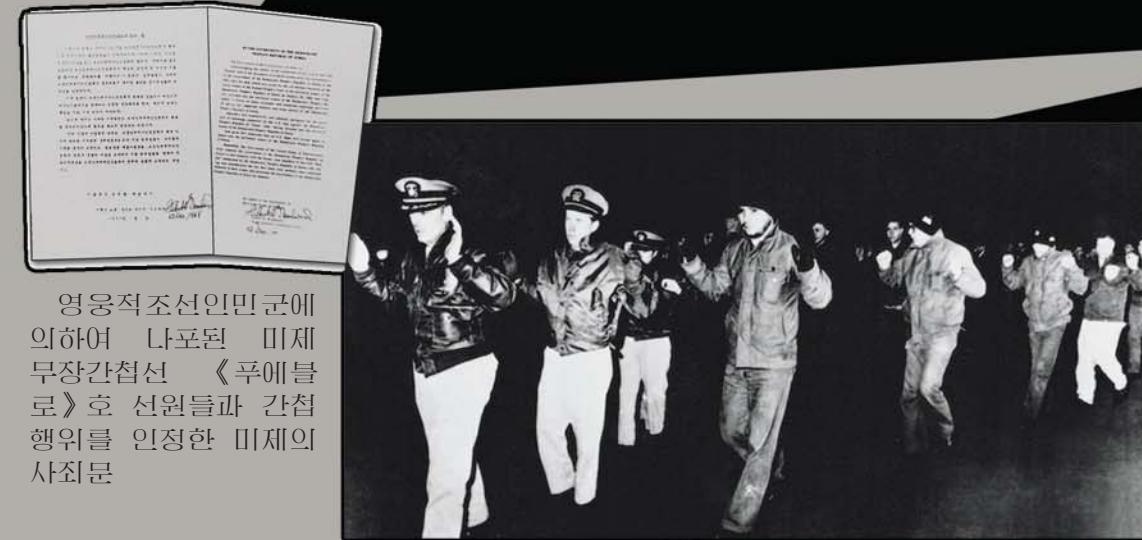
오늘 조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 우주강국으로 세계만방에 그 이름을 빛내이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멘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패배를 당하기만 한것이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이다.

어길수 없는 이 승리의 전통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조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는 조선의 것으로 될 것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침략자들의 몰골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청진협정문  
건에 서명하고 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선원들파 간첩  
행위를 인정한 미제의  
사죄문



격추된 미군무장직승기와 그 조종사



우리측 지역에 침공하였다가  
격추된 미군용기



공화국령해에 침입하였다가  
격침된 《경호함 56》호



공화국령공에서 정찰행위를 감행하다가  
나포된 미제의 직승기

본사기자 전룡진

# 지울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4)

이번호에서는 조선인민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저지른 민족고전소각만행과 력사외곡책동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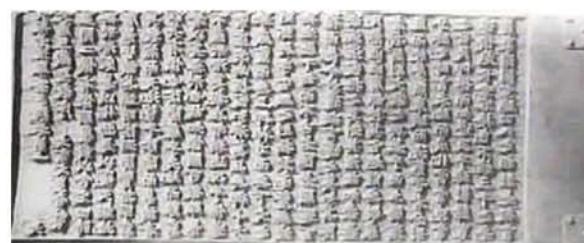
- 민족고전소각 및 랙탈 -

오랜 옛날부터 학문을 숭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온 우리 선조들은 이른시기부터 각 분야의 도서들을 많이 집필하여 수많은 책들을 출판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민족고전들이 력대 외래침략자들의 침략과 랙탈, 방화로 인하여 수많이 류실되기도 하였으며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 등 해당 나라의 멸망과 함께 수많은 고전들이 또한 사라져



일제가 랙탈해간 문학고전들의 일부



일제가 랙탈해간 고려대장경 목판본

일제가 랙탈하여 저들의 박물관에 진렬하여놓은 회화작품들의 일부



조선의 력사도서들을 몽땅 회수하여 없애버리려던 저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게 되자 일제는 《조선사》를 편찬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귀중한 사료들을 몰수하여 저들의 외곡된 력사편찬에 도움이 될 자료들만 남겨놓고 모조리 없애치우고도 성차지 않아 조선의 방방곡곡을 돌아치며 수많은 민족고전들을 랙탈해 없애버리였다.

일제는 조선사외곡이

버렸다. 그나마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군이 20만자에 달하는 활자들과 함께 수많은 도서들을 랙탈해감으로써 조선의 민족고전의 대다수가 없어지게 되었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무엇보다 먼저 조선인민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서적들에 대한 《조사》놀음을 벌려놓고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도서들을 압수하여 소각해버리였다.

조선강점직후 조선 《총독》 데라우찌는 《조선의 관습과 제반 제도조사》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각 도, 군경찰서를 동원하여 력사책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을 대대적으로 압수하는 소동을 벌려놓았다.

이 시기 일제가 감행한 도서량탈과 소각만행에 대하여서는 여러 문헌에 전해지고 있다.

일제는 1910년~1918년에 1차로 《자료수집》의 명분을 내걸고 전국 방방곡곡의 옛집, 서원, 사찰, 향교, 서당들을 대상으로 경찰, 관리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고전들을 수색 압수하였으며 이 시기에 다 수탈할수 없게 되자 1937년까지 그 수탈 시기를 연장하였다.

일제는 1차로 수탈한 도서들을 소각하는 한편 전문학자들을 연 2 800일동안 조선각지에 내보내여 1921년부터 1937년까지 수많은 도서들을 압수하였다.

일제는 도서들을 불태우는데만 그치지 않고 력사책들을 숨겨두거나 몰래 읽는 애국적인민들을 감옥으로 끌어갔다.

조선인민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만행에 격분한 애국적인민들은 력사책을 더욱 깊숙이 보관하고 탐독하였다.

조선의 력사도서들을 몽땅 회수하여 없애버리려던 저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게 되자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부심을 말살하고 조선사람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반도사편찬요지》라는데서 《…력사책(조선력사) 등을 모조리 없애버린다는 것은 공연한 수고일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그 같은 도서들이 전파되게 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옛날 력사책들을 압수하고 단속하기보다는 〈공명정확한〉 력사책을 만드는 것이 빠른 길이며 그 효과도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사〉의 편찬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 것이다. …》고 하면서 외곡된 력사책을 조작하여 조선민족말살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1938년 3월에 조선력을 완전히 란도질한 전 35권의 《조선사》(2만 4 000페지)를 날조해냈다.

일제의 조선문화재량탈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력사적으로 전해져온 귀중한 민족고전들을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일본으로 빼돌린 것이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말살할 목적으로 민족고전들에 대한 랙탈과 소각을 국가적으로 계획화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첫 시기부터 고서적들에 눈독을 들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랙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우두머리들은 앞을 다투어 력사적으로 내려온 봉건정부의 문서고들을 뒤져내여 그것을 비법적으로 일본에 반출해갔다.

일제는 조선강점 초기부터 《조선고서간행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조선의 귀중한 고문서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국의 경찰서와 현락을 맷고 고서적에 대한 《조사수집》을 진행하였다.

일제의 조선서화량탈은 세월을 거슬러 이미 왜구의 침입과 임진조국전쟁시기에 날강도적으로 감행되었다. 그러나 이에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근대시기 조선에 대한 침략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회화작품들을 또다시 랙탈하였던 것이다.

동양의 최고걸작품인 고구려고분벽화, 고려의 우수한 회화작품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미술작품들…

이렇게 갖은 기만적, 강압적방법을 다 발동하여 조선의 민족고전들을 수많이 소각, 랙탈한 일제의 야만적인 문화말살범죄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 풍산수의 계산법

옛날 한사람이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풍산수라는 량반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다.

풍산수는 어찌나 어리석었던지 콩파 보리도 분간하지 못하는 위인이었으나 임금과 인척관계에 있다고 하여 고관대작 부럽지 않게 수많은 하인들을 두고 갖가지 짐승을 치면서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쓰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이런 집에 새로 들어간 하인은 그 집안의 잡사를 거들면서 수백마리의 집오리를 아침에 강가에 몰아내갔다가 저녁에는 우리에 다시 걸어넣는 일을 맡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이 안될세라 첫날에 여우 한놈이 나타나서 오리 한마리를 물고 달아났다. 하인은 두 주먹을 부르쥐고 여우를 따라 산판을 오르내렸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저녁에 주인인 풍산수는 우리로 들어가는 오리를 일일이 세여보았다.

콩파 보리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그인지라 셈도 셀줄 모르다니니 오직 한쌍씩 맞추어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날도 한쌍한쌍 맞추어보던 그는 한마리가 남자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놈아, 어찌 한마리가 모자라느냐? 어데다 잃어버리고 왔느냐?》

하인은 사실대로 말했으나 풍산수는 작대기로 때리면서 고아댔다.

《바른대로 말해라. 네놈이 게을러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잡아먹었지 여우는 무슨 여우냐? 누굴 속이겠다고 변명이냐. 오늘 네 버릇을 폐놓고야말겠다.》

나중에는 하인이 래일 기어이 찾아놓겠다고 해서야 매를 그치였다.

그 이튿날 아침밥도 주지 않아 오리를 물고 강가에 나간 하인은 배가 고파 견딜수 없었다.

그런데 한마리가 쌩이 맞지 않았던것이 사달이였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는 오리 한마리를 잡아 구워먹었다.

이날 저녁 풍산수는 오리를 또 한쌍씩 맞추어보다가 짹이 꼭 맞으니 그제야 좋아하였다.

《그저 하인은 매로 다루어야 한다니까. 이것 보지. 여우는 무슨 여우냐. 어제 잃었던것을 찾아놓지 않았나?》

하인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았다.

후에 이 말이 퍼져 세상에서는 쌩으로 셈을 세거나 어리석은 셈을 하는것을 《풍산수의 계산법》이라고 하였다.

\* \* \*

# 죄와 벌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정권》퇴진을 투쟁구호로 내걸고 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이것은 현시기 남조선 사회의 민심이다.

자고로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 세계사에 기록된 비명횡사한 폭군들은 레의 없이 민심을 잃은 자, 민족을 등진 자들이였다.

반인민적, 반통일적 악정으로 악명 떨치고 있는 남조선 《정권》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권유린의 표본국》, 《자살왕국》으로서의 오명을 떨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부익부, 빙익빈의 사회악으로 실업대군이 차넘치고 있다.

남조선 전체 주민세대의 47%에 달하는 850여만 세대가 보금자리도 없이 세방이나 쪽방, 비닐집 등 집 아닌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완전실업자는 450여만명,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고용되어 낮은 임금에 아우성치는 반실업자는 1 000만명에 달한다.

대학생의 60%이상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파외로동, 생체실험에 몸을 내대고 있고 무직자, 학교졸업을 미룬 학생 등 《사회밖청년》은 456만

## 조선속담 (조소)

-거미줄에 목을 뱉다

공연히 분해하는 사람에게 《거미줄에 목을 매고 죽으라.》고 놀리여 하는 말.

-개도 싸다니면 봉동이에 맞는다  
집안에 들어박혀있어야 할 개가  
먹을것을 찾아 눈이 벌개서 돌아다  
니면 봉동이 짐질을 당한다는 뜻으로  
재산이나 재물을 걷어모으려고 사방  
으로 싸다니면 멀시와 조소를 받게  
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노래기 회처며겠다

노린내가 뽑시 나는 노래기를 회  
쳐먹겠다는 뜻으로 비위살이 매우  
좋은 사람을 조소하여 이르는 말.

-미친개 친 몽둥이 삼년 우린다  
하찮은 자랑을 오래 두고 하는 사  
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

-변덕꾸리기 죽 끊듯 하다

변덕을 뽑시 부림을 비꼬아 이르

는 말.

-삶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 러지  
겠다

삶은 소가 웃을수는 없다는데로부터 하는 품이 무척 어이없고 가소롭다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

-속뜻 벗고 함지박에 (뛰어)들다

벌거벗고 너무나 다급하여 몸도  
가릴수 없는 함지박속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쳐놓고 그것을 가  
리워보려고 당치도 않은 수단에 매  
달리는 모양을 비웃어 이르던 말.

-술은 부엌에 놓고 절구는 혀간에  
놓으라고 한다

술과 절구를 놓을 자리는 스스로  
정해져있어 집집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아래라저래라 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똑똑한체 하는 사람

을 비꼬아 이르는 말.  
\* \* \*

2 000여명으로서 20대 청년층의 48%에 달하고 있다.

녀성로동자의 70%가 더럽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항시적인 해고불안상태에 있으며 취업난과 생활난으로 해산을 포기한 여성은 54%에 달하여 출산률이 세계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반동통치는 외세와 야합하여 6. 15통일시대를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극악한 동족대결의 날과 달로 얼룩져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백지화하고 《통일대박》, 《드레즈덴선언》과 같이 《흡수통일》 실현을 위한 열빠진 정책들을 들고나와 체제대결에 광분하였다.

이런 체제대결책동에 의해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망발이 거리낌없이 나오고 있으며 《흡수통일팀》이 실지 존재하고 있다.

외세와 야합하여 그 누구를 《무력화시키고 통일》 하는것을 체제대결, 《흡수통일》의 골자로 내세운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필요한 각종 해무기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있으며 북침공격연습을 그칠새없이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군과 남조선군과의 련합사단을 편성하여 세계 그 어디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는 전쟁참모부를 항시적으로 가동시키고 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군사시설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침략무력강화에 날뛰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상전과 함께 미본토핵무력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 북남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전면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과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기지들을 선제타격할것을 노린 《4D작전계획》을 들고나왔다. 지어 기존

## 고화

# 《사신 바다를 건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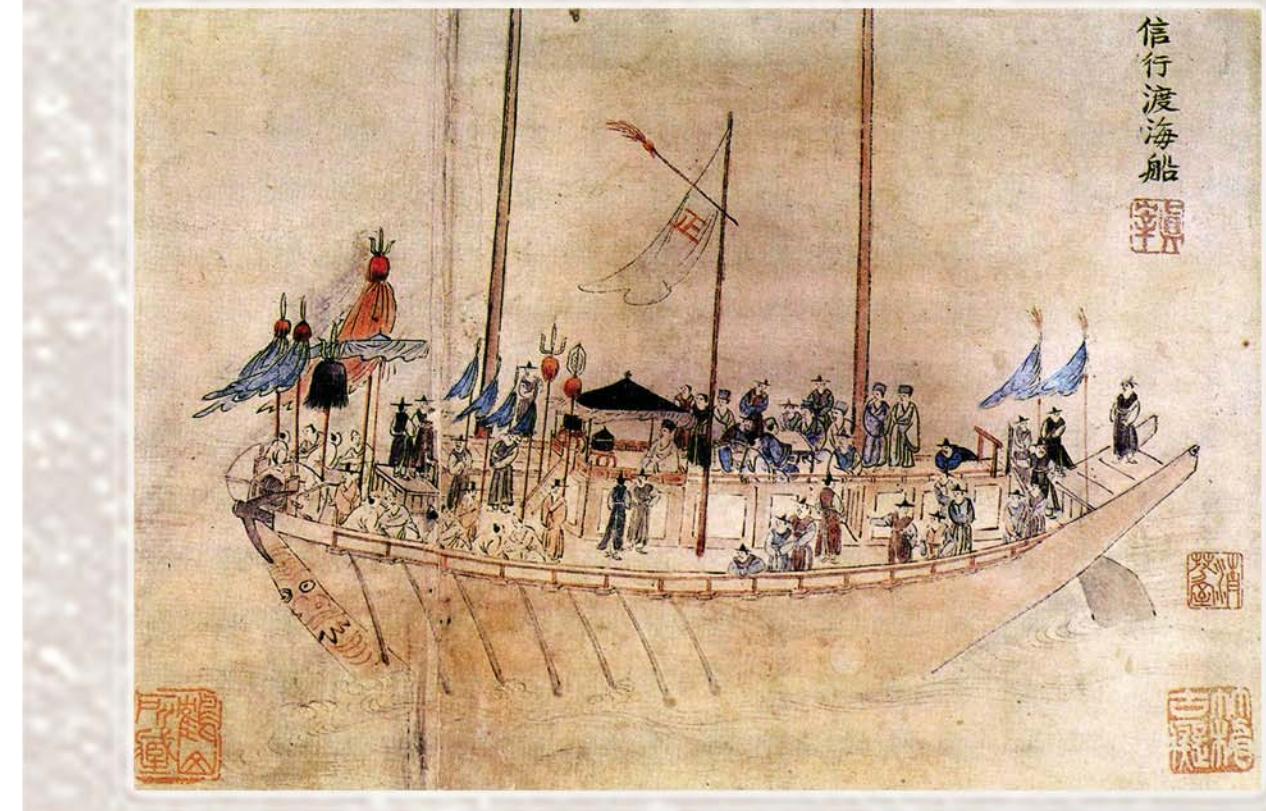
김윤겸(1711년-1775년, 자 국양, 호 진재)은 사실주의적이고 애국적인 화가였으며 역마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찰방의 벼슬도 지냈다. 아버지 김창업도 재능있는 화가였는데 그가 10살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후에는 아버지의 막역한 친구인 정선으로부터 그림그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그는 정선의 우수한 화법을 이어받아 실경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역사적인 사건을 취급한 기록적인 인물화도 그렸다.

고화 《사신 바다를 건느다》는 우리 나라의 사신일행이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광경을 그

린 것이다. 정사, 부사, 종사관 등 특별히 잘 그린 인물들과 기타 관복을 입은 성원들과 사공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차림새로 각이하게 움직이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신고 크고 작은 갖가지 기발들을 펼쳐이며 물결우로 가벼이 달리는 큰 배는 사절단의 위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흔치 않은 주제를 다른 회화자료일뿐 아니라 당시의 복장과 사신일행의 의례규범을 연구하는데도 자료적 가치가 있다.

\* \* \*



의 북침전쟁각본들보다 더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까지 꾸며냈다.

더우기 미국과 남조선이 미핵항공모함전단과 핵잠수함은 물론 《B-2》, 《B-52》핵전략폭격기들, 《F-22A》스텔스전투기 등 미국의 각종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다 끌어들여 진행한 《키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시에 벌려놓은 《북중심내륙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

《참수작전》,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은 가장로 골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었다.

이와 같이 민심을 거역하고 반인민적, 반통일적 악행만을 일삼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정권》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

본사기자 전민



승리의 7. 27을 경축하여 본사기자 최원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 차넘치는 7월,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에서 뿜어져나오는 오색찬연한 비행운마저  
승리의 7. 27을 경축해준다.